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CHURCH PLANTING STRATEGY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IN A RURAL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KIL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KWANG HO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Nam Hyuck Jang

Young Shin Kim

Seyoon Kim

May 1, 2007

**CHURCH PLANTING STRATEGY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IN A RURAL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KIL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KWANG HO LEE

MAY 2007

도시 변두리 지역에서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개척 전략: 한길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장남혁 교수

이 광 호

2007년 5월

Abstract

Church Planting Strategy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in a Rural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kil Presbyterian Church

Kwang Ho Lee

Doctor of Ministry

200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our Lord, 'Making Disciples', is given to every Christian.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show how Discipleship Training are important for Church Planting and is a successful and basic strategy. Since many people believe that Church Planting has ended particularly in Korean Society, I tried to prove that Church Planting is still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to proclaim the Gospel and believe that Church Planting is still possible by Discipleship Training in Churches.

In Chapter 1 I raised questions regarding the stopping of Korean Church growth, and tried to find out reasons that the Korean church has been declining. I investigated how one of the fastest church growing countries in the worl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could have declined so rapidly. Also I mentioned a method for the thesis and its limitation.

In Chapter 2 I defined the words, 'Church Planting' as a theory, a motif, and a model of church planting in general, and dealt with how and what to prepare for Church Planting, and touched on the obstacles or hindrances for Church Planting.

In Chapter 3 I saw 'Discipleship Training' to be a crucial tactic and also why it is so important in Church Planting, and researched the misunderstandings of concept, principles, values, factors, or purposes and the applica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as Church Planting strategy.

In Chapters 4-6 I gave accounts of how Hankil Presbyterian Church started

through the Discipleship Training in the past and will continue doing so in the future. As described in the process of the beginning of the Church's planting, I detailed that Discipleship Training took a significant role in the Church Growth and for financial independence.

Finally, in Chapter 7 I concluded in assessing the ministerial work of Hankil Presbyterian Church in terms of Discipleship Training, and made a suggestion of the ongoing possibility of Church Planting continuing in Korea. I believe we can all learn a valuable lesson from Discipleship Training to develop Church Planting further.

There is no time limit in which Church Planting must be completed, for I believe that Church Planting is necessary whenever and wherever, and that this was Jesus Christ's final commandment to us and I am convinced that Church Planting will be successful as long as we follow Jesus' Great Commission as a strategy for God's glory.

The thesis aims to help those who are hesitating to participate in Church Planting because of the fear of failure and to encourage those who deny any possibility of Church Planting due to their past experiences, and to convince them and to give them hope.

Theological Mentors: Nam Hyuck Jang, Ph. D.

Young Shin Kim, Ph. D.

Seyoon Kim, Ph. D.

헌 사

이 논문을 아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로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칩니다.

감사의 말씀

언제나 한 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회의 현장에서 한없는 감격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도 큰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미약하고 부족한 본 논문을 과분한 칭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셔서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장남혁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들 드리며, 김영신 박사님께도 감사들 드립니다. 또한 깊은 성경 신학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도록 깊은 영향을 주셔서 목회에 큰 도움을 주신 김세윤 박사님께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김삼봉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들 드리고, 또한 저와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세미나와 서적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분명한 이론 정립과 확신을 갖도록 영향을 주신 옥한흠 목사님께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목회의 현장에서 강한 훈련을 받아내며 아름답고 믿음직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이제는 함께 주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여, 교회들 세우는데 귀하게 동역하는 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또한 곁에서 자료정리와 재정, 그리고 번역으로 도와준 임순권 전도사와 이재훈 집사, 김숙경 집사에게도 심심한 감사들 드립니다.

본 논문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김태석 목사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은 목회의 사역을 곁에서 동거 동락하면서, 때로는 묵묵히, 그리고 때로는 격려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나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랑하는 아내와, 언제나 아빠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쁨이 되어 준 딸 하은과 아들 동석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와 같은 분들과의 축복의 만남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논문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2007년 5월 이광호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한계	6
제 2 장 교회 개척 이론	8
제 1 절 교회 개척의 정의와 이유	8
1. 개척의 정의	9
2. 신학적 이유	9
3. 일반적 이유	15
제 2 절 교회 개척의 요소	16
1. 영적 요소	16
2. 기술적 요소	17
제 3 절 교회 개척의 모델	20
1. 양식적 모델	20
2. 조합적 모델	22
제 4 절 교회 개척의 준비	23
1. 목회자 자신	23
2. 비전과 계획	30
3. 사람과 장소	32
4. 재정과 후원	34
제 5 절 교회 개척의 장애물	35
1. 포화 상태의 교회	36
2. 작은 교회의 한계	37
3. 개척 비용	38
4. 목회자 윤리	39

5. 하나 됨의 파괴	40
제 3 장 교회개척 전략으로서의 제자 훈련	41
제 1 절 제자훈련이 교회 개척의 전략인 이유	41
1. 지상명령	42
2. 교회의 본질	43
3. 성경적 목회 방식	45
4. 변하지 않는 목회 원리	46
제 2 절 제자의 개념	48
1. 몇 가지 질문	48
2. 제자의 개념 정리	48
제 3 절 교회개척 전략으로서의 제자훈련	54
1. 원리	54
2. 가치	55
3. 요소	60
4. 목적	66
제 4 절 제자훈련을 실패하게 하는 오해들	70
1. 목적에 대한 오해	71
2. 방식에 대한 오해	72
3. 부정적 견해로 인한 오해	74
제 5 절 교회개척 전략으로서의 제자훈련 적용	76
1. 형태적 적용	77
2. 선택의 적용	78
3. 훈련의 적용	79
4. 종식의 적용	80
5. 초점의 적용	80
제 4 장 한길교회의 현황	82

제 1 절 설립	82
1. 설립 배경	82
2. 간단한 연혁	83
제 2 절 지역적 상황	83
1. 지리적 상황	84
2. 사회적 상황	84
3. 경제적 상황	84
4. 교육적 상황	85
5. 종교적 상황	85
제 3 절 한길교회 목회 비전	85
1. 감격의 예배	85
2. 믿음의 명문가	87
3. 선교명령	88
4. 다음세대	89
5. 예배당, 교육관, 선교관	90
6. 교회 비전 선언문	91
제 4 절 한길교회 목회 철학	91
1. 교회론	92
2. 교회론의 위기	93
3. 교회란	93
4. 교회의 사명	94
제 5 절 한길교회 목회 전략	96
1. 제자도	96
2. 제자훈련	97
제 6 절 개척 3차 7개년 계획	97
1. 계획의 동기	97
2. 3차 7개년 계획	98
3. 계획의 유의함	98

제 7 절 한길교회 교육과 사역	98
1. 주일학교	98
2. 새 가족반	99
3. 주간성경공부	99
4. 제자훈련	100
5. 사경회	100
6. 수련회	101
7. 전도와 선교	102
8. 가정교회	102
9. 사역팀	103
제 5 장 제자훈련을 통한 한길교회 개척	104
제 1 절 선택 이유	104
제 2 절 준비	104
1. 목회자 준비	104
2. 전도	105
3. 훈련생 선발	106
제 3 절 과정	107
1. 예비과정	107
2. 양육과정	108
3. 제자과정	108
4. 사역자과정	109
제 4 절 훈련 내용	109
1. 성경	109
2. 숙제	111
3. 수련회	114
4. 사역현장	114
제 5 절 교재	114

1. GBS 교재	115
2. 현장	115
3. 지도자	115
제 6 절 제자훈련 현황	116
1. 수료생	116
2. 훈련생	116
3. 준비생	116
제 6 장 제자훈련 전략이 개척과 성장에 미친 영향	118
제 1 절 목회 비전에 미친 영향	118
1. 감격의 예배	118
2. 평신도 세움	120
3. 가정 세움	123
4. 다음세대 준비	126
제 2 절 교회 자립과 성장에 미친 영향	127
1. 양적 성장	127
2. 인적 자립	127
3. 공동체적 성장	128
4. 지역사회에 대한 성장	128
5. 재정 자립	129
제 3 절 교육과 사역에 미친 영향	130
1. 주일학교	130
2. 장년성경공부	130
3. 제자훈련	130
4. 전도와 선교	131
5. 소그룹	131
6. 사역팀	132
제 4 절 목회자에게 미친 영향	132

1. 심리적인 면	132
2. 사역적인 면	134
제 5 절 직분자들에게 미친 영향	134
1. 자신감	134
2. 개인 신앙관리 능력	135
3. 가정의 안정	135
4. 다른 사람을 돌보는 능력	136
5. 일할 수 있는 능력	137
제 7 장 결론	138
제 1 절 사역의 평가	138
1. 교회의 문제 예방	138
2. 교회의 견고한 성장	139
제 2 절 교회 개척의 가능성	139
제 3 절 교훈과 발전 제안	140
제 4 절 교회개척 사명의 완수를 소망하며	140
부록	143
참고 문헌	153
Vita	15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884년 알렌과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한국에 첫 발을 던고 선교를 시작한 이래 한국교회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이적인 부흥을 이루어 왔다. 이에 대해서 옥한흠은 그의 책 *평신도들 깨운다*에서 “어느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교회는 매년 13-15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여 왔는데, 이는 인구 증가율 2퍼센트 보다 600-700퍼센트 앞서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¹⁾ 세계교회는 한국교회 성장을 주목하였다. 김선주로 대표되는 기도 중심적 신학사상은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회와 수많은 기도원들, 그리고 사경회와 성경공부와 접목되면서 한국교회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1907년의 평양 대 부흥 운동을 일어나게 했고²⁾ 거리마다 쉽게 볼 수 있던 열정적인 전도와 경이적인 성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세계적인 교회들,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월드 오퍼레이션(World Operation)의 86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전체 국민의 30퍼센트가 신자이므로 전 세계 기독교 성장 국가로서 최고라고 말하고 있다.³⁾ 외국의 많은 신학교들과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한국교회 성장의 이야기는 주요 내용이었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자 하는 외국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급성장을 한 결과 이제는 한국에 더 이상의 선교사가 들어 올 필요가 없다고 할 만큼 한국에는 교회가 많이 있게 되었다. 인구 4,700여만 명이 살고 있는 한국(남한) 땅에 교

1)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22.

2)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 (서울: 규장, 1999), 20.

3) 김상복, *교회와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엠마오, 1987), 84.

회가 약 50,000여개가 있어서 이제는 교회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물량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본격화된 민주화와 번영화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교회들은 서서히 침체의 길로 들어선 이후 전 세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한국교회의 고속 성장은 이제는 침체로 돌아섰다는 여러 보고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교회성장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교회성장의 연평균 증가율이 60년대에 41.2퍼센트, 70년대에 12.5퍼센트, 80년대에 4.4퍼센트, 그리고 90년 이후에는 불과 3퍼센트 미만에 머무르다가⁴⁾ 급기야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가는 곳마다 한국교회들 염려하거나 비판하는 소리들을 자주 듣게 되는 것 또한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교회가 심각한 증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허수(虛數), 허세(虛勢), 허상(虛像)의 삼허현상”⁵⁾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 전체 교회의 5퍼센트에 불과한 대형교회만을 성공한 교회와 성공한 목회자로 보는 세속적인 시각이 만연되어 있으며, 교회 안에까지 성공주의와 한탕주의 그리고 물량주의가 심각하게 들어와 있다. 네 명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회는 오히려 더 급속히 부패해가고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마 5:13-14)는 성경내용은 무색하게 되어 버렸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원리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중심, 기도중심은 인간중심, 철학중심, 가정중심, 행사중심으로 바뀌어 버렸다.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의 신학은 그 초점을 하나님과 그 뜻에 두기 보다는 인간과 그의 의지에 두는 것이다. 번영의 신학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더 큰 교회들 추구하게 하는 허영심을 가지도록 조장하고, 결국 대형화와 물량화를 추구하는 현대의 대교회 주의들 초래했다. 건물이 큰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교회,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가 현대교회의 이상형이 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목회 사역의 인위성과 허영을 조장했고, 신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서 현세적 물질 축복에 두도록 했다.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원 받은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보다는 개인의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

4) 이만재,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서울: 규장, 1997), 7.

5)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26.

6)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 22-23.

라 자기들의 행복추구를 위한 생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교회는 전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회들 바라보면서 애써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긍정적인 말로 위로들 얻고자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초라함과 비참함만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가는 곳마다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칭찬과 영광의 소리보다는 비난과 아쉬움의 소리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세상 속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무관심과 냉소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 교회들 개척한다고 하는 일은 더 많은 고통과 대가들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회들 개척하고 교회 문을 열어도 30-40년 전처럼 성도들이 구름 메처럼 몰려들지 않는다. 그 때는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고급 인테리어들 해도 상가교회는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는다. 발이 부르트도록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전도들 하면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2-3명 놓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교회들 성장시키고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 세미나 저 세미나들 다녀보지만 그것도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어쩌다 한 명 전도들 해 와도 썰렁한 분위기 탓에 금방 발을 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회자는 점차 소명이나 의욕은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이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경험을 한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급기야는 교회들 개척하고 재정적인 압박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개척교회 목사가 자살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개척한 교회들의 상당수가 1-2년 안에 문을 닫고, 그 자리에는 이름이 바뀐 또 다른 개척 교회가 들어온다. 인터넷에는 이렇게 목회들 그만두고 문을 닫는 상당수의 개척 교회들이 자리들 내놓는다는 광고가 연일 올라온다. 문을 닫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상당수는 미자립 상태에 머물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과 연단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개척교회 목사들을 만나보면 목회가 즐겁고 기쁘다는 목회자보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은 것 역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하는 숫자에서 보다, 진정 살아도 주들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들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에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는 이미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로 치부

되고 외면당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목회자들조차 단순히 출석하는 성도 숫자로만 가늠하여 그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버리는 분위기가 목회자들이 모이는 각종 모임이나 신학원들의 신학생들에게까지 팽배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이들은 교회들 개척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한다. 교회 성장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작금의 교회 성장이란 수평이동이라고 말한다. 작금의 한국 상황에서는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국내에서 교회들 개척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린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개척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전에 비하여 신학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하려는 졸업생들보다 후임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와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또는 지나치게 세속화된 교회 개척의 모습 등 비정상적인 교회 개척의 현상들이 여기 저기에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학원들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목사 초년생들을 교회 개척의 현장으로 떠밀어내듯 쏘아내고 있다. 교단과 신학원에서는 아무 방책 없이 그저 각자가 알아서 빛과 소금이 되고, 사명을 완수하라고 세상으로 밀어낸다. 교회들 개척하고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부흥이 되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하여 교회들 접고 소명마저 다 팽개쳐도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로 이야기 하면서 아무도 보살피 주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새롭게 교회들 개척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러나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분명 교회 개척의 일이 멈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개척되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다. 교회 개척의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다. 교회는 지금도 개척되어야 하고 또한 개척할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명령은 살아 숨 쉬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들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필요하며,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교회는 더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더 절실히 필요하며, 그분의 생명의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의 말처럼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 하늘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⁷⁾ 교회들 개척하여 새로 세우는 일이 어리석은 시대는 따로 없는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어리석은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 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 60:1-3).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사 60:21-22)고 약속하신 언약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는 주님의 지상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소명 받은 목회자가 사도 바울과 같은 불덩이 같은 열정⁸⁾과 확고한 목회철학, 그리고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 교회 개척은 지금도 가능할 뿐 아니라, 즐겁고 감격이 넘치는 일임을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 초대 교회에서 그토록 강력하고 힘 있게 역사하던 교회가 후대에 와서는 왜 그렇게 허약해 졌는지들 찾아내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다. 확실한 승리를 약속 받았던,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였던 교회가 왜 작금에 이르러서는 그토록 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었는지들 찾아내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비록 여러 가지 세태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들 어떻게 개척하고 세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한길교회들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개척을 준비하는 동

7) C. Peter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홍원팔 역 (서울: 알돌기획, 1994), 17.

8)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잔여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는 불덩이 같은 열정을 보여주었고, 평생 그 불같은 열정은 식지 않았다.

역자들과 개척을 회피하는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한길교회는 1997년 5월 10일 인천의 한 구석에서 개척되었다. 처음 개척했던 자리는 이미 세 개의 교회가 개척 되었다가 문 닫고 나간 자리였다. 지역은 인천에서 대표적 인 우범지역이었다. 그러나 개척해서 3년째 되는 해에 자립이 되었고, 10년째인 현재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소문이 나면서 잘 세워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 본인이 너무도 큰 기쁨과 감격을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크게 누려오고 있고, 내일에 대한 보다 큰 소망 속에서 비전을 키우며 희망의 목회들 하고 있다. 아무쪼록 한길교회의 개척 내용을 연구하여 소개함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 개척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면 이 논문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한계

이 논문은 문헌연구방식을 통해서 교회 개척과 제자훈련이라는 이론적인 연구들 하였고, 한길교회의 현장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현상을 연구하여 교회개척에서 제자훈련 전략을 가지고 교회들 개척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문제점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한길교회의 개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연구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연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때문에 한길교회 개척과 제자훈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취사선택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연구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현장이 한길교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인천 서구라는 도시 변두리 지역의 한정된 지역상황과 소형교회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한계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방식과 전략적인 요구들이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제자훈련’이라는 전략적인 내용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이 논문의 한계라 여겨진다.

그러나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에게는 개척을 위한 건설하고 필요한 교회 전략의 도움을 주고 싶은 소박한 소망이 있다. 목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애씀과 노력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회의 현장

은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도 필요한 곳이며 이 일은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목회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도전이 항상 존재하는 곳임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릭 워렌(Rick Warren)의 말처럼 “하나님은 파도들 만드시고, 우리는 그 파도들 타는 것”⁹⁾이고, 그 파도들 타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새로 교회들 개척하고자 하는 동역자들과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소박한 소망이다.

9)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테, 1997), 21.

제 2 장

교회 개척 이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론은 실제들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주는 버팀목이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이론을 배움으로서 실제들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교회 개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회 개척에 관한 이론을 알아보려고 한다.

제 1 절 교회 개척의 정의와 이유

한 목회자가 자신이 신학생일 때 개척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매우 근사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신이 교회들 개척했을 때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한다.¹⁰⁾ 그렇다. 교회들 새로이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리 만만한 일도 아니다. 옆에서 볼 때 혹시 멋지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는 얼마든지 있다.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통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 꿈은 깨지고 현실은 혹독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들 개척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들 새로 개척하여 세워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10) Elmer Towns, Dougla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Churches that Multiply)*.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135.

1. 개척의 정의

‘개척’의 사전적 의미는 ‘거친 땅을 일구어 쓸모 있는 땅으로 바꿈’, 혹은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 나감’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 ‘교회 개척’은 ‘거친 땅을 일구어 하나님의 부름 받은 공동체를 세워 나감’, 혹은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공동체를 만들어 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교회 개척은 황무하고 척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구어 내는 것이고, 어둡고 황폐한 곳에서 새롭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복음의 길을 새로 열어 나가는 것이다.

2. 신학적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만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만드신 또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인간의 교안물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다.¹¹⁾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모든 만물이 성장하고 번식할 때만 살아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할 때만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¹²⁾ 다시 말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여 세움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였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였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지상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과 마

11)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Saturation Church Planting)*,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222.

12)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5.

태복음 28:19-20 말씀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였다. 이상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교회들 세워 복음으로 그 지역을 정복하라는 것이었다.¹³⁾ 다시 말해서 가서 교회들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교회들 개척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교회 개척을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⁴⁾

우리가 새로운 교회들 개척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회들 개척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권능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불러 교회들 세우신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말씀은 결국 교회들 세우고,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왔고, 또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 하시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인 수가성에 가셨고,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한 여인을 찾아 구원하셨다. 예수님 승천 후에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의 개종이 일어났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과 방불한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또한 이방인들도 상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가 욕바에 있을 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온 가족이 믿는 믿음의 역사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세례 받기를 권했고, 가이사랴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¹⁵⁾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설교했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행 11:24). 처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은 가이사랴, 그리고 그 다음은 안디옥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보내셨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13)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16.

14) Ibid. 17.

15) Ibid. 105.

가 없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파송했다. 지금도 곳곳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이 방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그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신다. 때로는 이미 찾은 양보다 잃어버려 아직 찾지 않은 양들에게 더 관심의 우선권을 두고 계신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99마리의 양을 남겨 놓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서 찾기까지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신다. 잃어버린 양들이나 방황하는 양들 중에 일부는 기존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또 한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¹⁶⁾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당시의 제자들이었지만, 이 명령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우리 역시 이 지상명령을 완수해야 한다. 우리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기꺼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주께서 그의 신실한 일꾼들이 이러한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분명 그들을 축복하시며 구약의 약속처럼 “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리라”고 하실 것이다.¹⁷⁾

셋째는 복음의 필요성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복음이 필요 없는 곳은 없다. 이 땅의 어떤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 복음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직도 이 땅의 3,700여만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아직도 이 땅에는 교회에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3/4에 해당되고 있다.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는 좌절한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다. 교회 개척은 전도의 대단히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보다 교회들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광범위하며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16)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33.

17) LeRoy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Be the Leader You were Meant to Be)*, 네비게이토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1993), 83.

넷째는 교회의 사명성이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말하기 어렵다. 전 인구의 25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이고, 50,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 나라, 목사가 70000명이 되는 나라,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의 나라, 그러나 세계 부패 순위 최상위권의 나라, 인터넷의 포르노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의 나라,¹⁸⁾ OECD국가 중 자살률을 최고,¹⁹⁾ 여성과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술을 마시고, 성인 음주자 5명 중 1명은 알코올 중독 현상을 보이고, 도수 높은 술 소비량 세계 4위인 나라²⁰⁾ 라는 현재 우리 사회의 현주소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교회는 분열을 치유하는 새 공동체이다.²¹⁾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사회의 ‘소금과 빛’이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이다. 교회가 없다면 그 세대도 소망이 없는 것이다. 교회로 인하여 그 세대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며, 복음으로 인하여 그 국가와 사회는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로 인하여 이 국가와 사회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창세기 12장 2-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이 나라와 민족, 개인과 가정들은 교회들 통하여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창세기 39장 2-5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의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들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라”고 하

18) 박성수 외,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서울: 규장, 2005), 68.

19) 김재중, “자살률,” *목회시사스콰렐*, 2005년 11월호, 55.

20) 김재중, “술독에 빠진 한국 사회,” *국민일보*, 2005년 9월 14일자, 2.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음주자 가운데 여성의 음주비율은 49퍼센트이며, 12세에서 1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음주비율은 55퍼센트에 이른다.

21) David W. Shenk and Ervin R.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Creating Communities of the Kingdom: New Testament Models of Church Planting)*, 최동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4), 22.

신 것을 보면,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듯이 교회에서 잘 양육한 신실한 신자들 통하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다.

단순한 기복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교회의 양적 팽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아니 이미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땅 여기 저기에서 유럽교회처럼 문을 닫는 교회가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 보인다. 작금에 이르러 교회가 줄어들고, 신자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위기의 징조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세대의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함이다. 성장하는 교회가 아무리 많다 해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교회 성장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이 세대는 어느 시대에도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건강한 신앙운동은 건강한 교회들 바탕으로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많을수록 힘 있는 신앙운동을 이 세대에, 그리고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것이며, 다음 세대에 건설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음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면 현재의 세속화된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강한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는 부분도 여전히 크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은 한 세대들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인 것이다.²²⁾

다섯째는 승리의 필요성이다.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명하셨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10-13).

교회는 이 세대들 이기고 승리하여야 한다. 사단과 세속주의와의 싸움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여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이 땅의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로 정복했던 이 땅이 다시 최악에 빠앗겨 졌다면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패앗

22)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27.

아 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땅 구석구석에 순교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고, 그 순교의 피로 우상과 미신과 세속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땅을 정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으로 교회들 세웠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 너무도 쉽고 무능하게 무너지고 있고, 이 땅 구석구석을 다시 빼앗기고 있다. 교회 대신에 곳곳에 술집과 모텔과 유흥업소들이 들어서고 있다. 기독교 문화는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세속적인 음란과 타락의 문화가 전국을 점령해오고 있다. 우리는 이 위에 교회들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다시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교회들 세워야 한다. 또한 교회로 인하여 이 나라 곳곳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일도 아니며 글을 쓰고 책을 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유명한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대형교회가 많아진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들 잘 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미래가 없다. 한 편에서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와 어려운 상황이 교회의 세속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합리화 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었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수하고 힘 있게 세워졌던 초대교회들 생각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신자다운 신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시대 맞도 아니고, 상황 맞도 아니다. 칼 바르트의 분석처럼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가 세상에 밝히고 있을 뿐이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그 순수 복음을 다시 상실한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²³⁾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부인하면서 신앙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 교회들 관찰하고 연구해 온 레오 오스터롬(Leo Oosterrom)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최대의 이슈는 세속화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²⁴⁾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의 개혁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3) 이정석, “세속화된 교회는 미래가 없다”, *목회와 신학*, 2005년 1월호, 53.

24) Ibid. 54.

2. 일반적 이유

교회 개혁의 일반적 이유에 대해서 피터 와그너는 다음 몇 가지들 이야기 한다. 그 가운데 공감에 되는 몇 가지들 함께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단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단의 생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작금에 이르러서는 교단을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한 예로 독립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교단이 사라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피터 와그너는 “만약에 많은 교파들이 현재의 감소율을 25년 내지 30년 동안 계속 한다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기조차 슬플 것”이라고 역설했다.²⁵⁾ 그의 말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교단이 비록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 교단이 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지도력의 개발이다.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신자들의 65.6퍼센트가 담임목회자의 설교와 예배가 자신들의 신앙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²⁶⁾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의 리더십 역시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지도력의 개발은 현재 교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심에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력 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새로운 교회의 세워짐이다. 새로운 교회가 개혁될 때 담임목사의 지도력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쉬게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있는 것보다 새로운 교회들 세우는 담임목사가 될 때 그의 지도력이 훨씬 더 크게 개발될 수 있으며, 큰 교회에서 문혀있을 수 있는 평신도 지도력도 작은 교회에서는 쉽게 발굴되고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의 개혁은 교회 지도력 개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셋째는 기존 교회에 자극을 준다는 것이다.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가 개혁이 되면 기존의 교회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교회 개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보고 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25)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21.

26) 공종은, “예배와 설교,” *기독교연합신문*, 2005년 9월 25일자, 2.

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종교적 관심을 더 갖게 하고, 기존의 교회에도 자극을 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더 서로가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되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1장 15-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더 전파됨을 기뻐하였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
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
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듬으로 그리스도들 전파하느니
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
리라.

제 2 절 교회 개척의 요소

교회 개척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하나는 영적인 요소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요소인데 이 두 요소는 마치 두 날개와 같이 어느 한 쪽만 있어도 안 되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도 안 되는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요소가 빠지면 마치 영혼이 없는 시체와 같아질 수 있고, 기술적인 요소가 빠진다면 마치 육체 없는 영혼과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두 요소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1. 영적 요소

많은 경우 교회들 개척하는 과정에서 간과되는 것이 영적인 요소이다. 이에 대해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은 “교회 성장운동은 최근에 선교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역동적인 운동”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교회성장의 지지자들은 예외 없이 인간적인 요인들만 강조하고 신적인 요인은 간과했다”²⁷⁾고 정곡을 찔렀다. 마치 오늘날 많은

27) J. Herbert Kane, *The Christian World Mission Today and Tomorrow*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202, 212.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51에서 개인용.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은 온 마음을 쏟아 준비하면서 정작 결혼은 준비를 하지 않아 결혼 후에 어려움을 겪고 급기야는 이혼에까지 이르듯이, 많은 교회들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준비는 심혈을 기울여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막상 개척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 결국 교회를 닫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이 현실이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준비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영적인 것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영적인 것을 준비시키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인 요소임을 밝히 말씀하셨다. 이미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다른 면에서 준비가 되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준비가 다 될 수 있음을 강조하신 것이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고,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영적인 요소의 핵심은, 개척되는 교회는 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가와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건축하고 나서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정밀 검사들 통한 준공검사들 받아야 하듯이, 교회들 개척하여 세우는 사역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검사와 테스트들 받게 되고, 최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만일 허가된 내용을 어기고, 조잡한 기술과 값싼 재료들 사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면 심판의 날에 심각한 책망과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²⁸⁾

2. 기술적 요소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 교회개척자, 개척 멤버, 목회철학, 연구 등이다.

첫째는 교회 개척자이다. 교회는 개척자가 있어야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교회 개척자는 성공적인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요소들은 결국 지도력에 의존하

28)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130.

교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²⁹⁾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교회 개척자가 어떤 목회자이냐에 따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의 소명과 적응력, 믿음과 사역에 임하는 태도, 배우자와 가족들의 협조, 그의 지도력과 인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개척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름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특히 교회 개척자는 회심과 소명이 분명해야 함은 자명한 이치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개척이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³⁰⁾ 교회 개척이 예수로부터 받은 소명과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다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교회 개척 사역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시작된 것이라면 쉽게 포기하게 되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교회들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자나 불신자에게 ‘교회론’에 대한 혼란과 오해들 갖게 할 것이며, 교회 개척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들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분명히 회심한 약간의 개척 멤버들이다. 새롭게 교회들 개척하려고 할 때 핵심이 될 만한 약간의 개척 멤버가 확보 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개척 멤버 없이 교회들 개척하는 일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록 불신자들 전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교회 개척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교회들 이해하고, 교회생활의 경험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다. 비전을 함께 공유한 신실한 몇 명과 함께 하는 개척은 훨씬 더 빠르게 교회들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이다. 멤버 없이 개척을 할 경우에는 교회의 핵심 인물을 만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목회자 입장에서 큰 고통인 것이다. 물론 몇 사람의 개척 멤버들과 함께 개척을 했다가 오히려 그 개척 멤버들로 인해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혹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순전히 새로 전도해서 교회들 개척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개척자가 회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척을 하는 목회자도, 그 개척을 돕는 멤버도 회심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심한 사람들을 교회의 사역으로 부르

29)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58.

30)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44.

신다.³¹⁾ 회심이 없는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 회심이 없는 사람은 소명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부름 받은 영의 일을 함께 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도들 속에 포함되었던 가롯 유다가 그랬고,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했던 데마가 그랬다. 결국 그들은 떠나갔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부름 받은 사람은 효과적으로 교회들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적절한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마 9:38; 눅 10:1-2). 적절한 일꾼들이 없이는 결코 효과적으로 교회들 세워가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는 분명한 목회 철학이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부르셔서 개척하도록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한다. 목회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개척을 한 후에도 수시로 흔들리게 된다. 여기 저기 세미나들 찾아다니기에 바쁘게 되고, 이곳저곳 목회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은 기진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어 목회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모방 목회는 그 생명이 결코 길 수 없다. 물론 목회들 해 나가면서 목회 철학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들 개척하는 담임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철학과 전략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³²⁾ 목회 철학이 분명할수록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노력을 할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넷째는 연구이다. 목표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잠언 18:13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전혀 아무 연구나 지식 없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것 보다 미리 연구하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이다. 개척할 지역과 주민, 상황과 여건 등을 사전에 연구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지혜로운 전략을 세운다면 훨씬 용이한 개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들 개척할 때 그 교회가 개척 될 지역의 사람과 문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바울 역시 교회들 개척할 때 그 해당 민족의 문화와 사고 형태를 중요하게 여겼다.³³⁾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될 때 비로소 현실화 될 수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의 문화와 사고 형태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화는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31)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41.

32)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202.

33)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179.

그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젓가락을 본 적이 없었다.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는 포크를 사러 갔으나 결국 포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을에 포크를 파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포크를 특별 주문했고 도착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그는 “스테인레스 포크 하나에 6달러나 지불했다”면서 불평을 떨어 놓았다. 누구의 문제인가?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없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그 선교사의 문제인 것이다.³⁴⁾ 이러한 충격은 선교사들이 두 번째 사역 기간에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교회들 개척하여 실패하게 되는 목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문화 간의 장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들 개척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먼저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등 가능한 상세하게 미리 연구하는 것은 교회 개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알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전혀 교회 개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개척을 실패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되고, 오해는 분노와 좌절을 낳기 때문이다.

제 3 절 교회 개척의 모델

교회개척의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들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양식적 모델이고, 둘째는 조합적인 모델이다.³⁵⁾ 이것은 방법적인 면에서 나누는 분류로서 어느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는 교회들 개척하고자 하는 목회자 자신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1. 양식적 모델

피터 와그너는 ‘양식적인 모델’이라고 하고, 엘머 타운즈(Elmer Towns)와 더글라스 포터(Douglas Porter)는 ‘모녀 접근법’이라고 부르는³⁶⁾ 이 모델은 하나의 지역

34)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110.

35)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70.

36)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94.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 다른 지역 교회들 낳는 모델을 말한다. 이 모델은 모교회가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 하는 모델이지만, 교회가 교회들 낳는 모델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을 말한다. 지역 교회가 새로운 교회들 개척할 경우 많은 효과적인 이점들이 있다. 특히 새로 개척되는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경험이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로 구성이 될 경우에 더욱 그렇다. 그들은 처음부터 상당한 수준의 헌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효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평신도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목회 철학에 동의한 가운데 함께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담임목사와의 갈등과 반목의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 함께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델의 경우 새로운 교회 개척의 성공은 지교회 개척에 동참하는 평신도들의 헌신과 소속감, 그리고 영성에 달려있다.³⁷⁾ 이 양식적 모델에는 다음 몇 가지 방법이 있다.³⁸⁾

첫째는 분봉이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서 이미 있는 지역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멤버들이 교회 개척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모교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어 교회들 개척하는 방법이다. 이때 새로 개척되는 교회는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사들 갈 필요는 없다.

둘째는 식민지화이다. 이 방법은 분봉의 방법보다 더 철저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역적으로 모 교회가 다른 지역에 교회들 개척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기 위해서 선발된 멤버들은 그 교회들 개척하려는 지역으로 이사들 가야 한다. 새로운 집,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옮겨가야 한다. 이 방법에 함께하는 멤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르는 높은 수준의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 방법으로 교회들 개척하는 경우는 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

셋째는 입양이다. 이 방법은 이미 개척되었으나 세워짐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한 교회가 입양방식으로 입양하여 그 교회가 자립하고 충분히 세워지도록 도우면서 모 교회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때로는 목회자도 떠나버려 거의 죽어버린 교회에 목회자들 파송하여 그 교회들 살려내는 방법인 것이다. 이 방법으로 죽어가는 교회나 이미 죽은 교회들 살려, 다시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내는 것을 말한다.

37)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96.

38)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71.

2. 조합적 모델

조합적인 모델 방법은 지역교회 밖에 있는 별개의 기관이나 개인이 교회들 개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선교팀이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팀을 구성하고 훈련시켜 교회들 개척하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촉매적 교회개척자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방법이다. 한 선교팀이나 한 개척자가 한 지역에서 들어가서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고, 그 교회들 위한 핵심 멤버들을 양성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교회들 계속 개척하는 방법을 말한다. 셋째는 독립적인 교회개척자이다. 이 방법은 한 목사가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교회들 함께 개척하는 모교회들 갖지 않는다. 함께 개척하는 멤버들도 없다. 그저 목사 혼자서 지역을 정하고 준비를 하고 전도들 하고 교회들 개척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가장 많고 흔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양식적 모델의 분봉과 식민지화의 방법이든, 조합적 모델의 선교팀이나 촉매적 방법이든 간에 모교회는 지금 있는 회중으로부터 개척 멤버가 될 사람들을 보내서 또 하나의 교회들 개척하는 것이다. 이 때 매우 주의할 기울일 것은 모교회로부터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고의 사역자들 보내서 새로운 교회들 설립하게 될 때 성공적으로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여 세울 수 있다.³⁹⁾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여 세우고자 할 때 이에 대항하는 사단의 대적과 방해가 분명히 존재한다.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의 복음 전도들 방해할 것이다.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개척 멤버들은 박해와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이다. 예상했던 것 보다 더 힘든 헌신이 필요하게도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 새로이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성공적으로 교회들 개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교회에서는 반드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보내주어야 한다.

교회들 개척하는 방법은 교회들 개척하는 목사의 은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계획단계에서부

39)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134.

더 어떤 목회철학을 가지고 어떤 교회들,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세울 것인가 들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제 4 절 교회 개척의 준비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교회들 개척하고자 할 때 대략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역시 목회자 자신이다. 그다음에 확고한 비전과 계획, 그리고 개척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과 장소,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정과 후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자.

1. 목회자 자신

무슨 일이든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흥미진진하기도 하지만, 대단히 어렵기도 한 것이다. 한 교회들 개척하는 것도 그렇다. 대단히 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준비들 잘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눈덩이처럼 더 커지게 된다. 교회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역시 목회자의 준비이다. 현실적으로 교회 개척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목회자의 준비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저 우격다짐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초조함 때문에 결국 조급중에 시달리다가 목회들 그만두게 되어 자신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며,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한 것이 사실이다. 한꺼번에 많은 변화나 많은 열매들 거두려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⁴⁰⁾ 그 일에 정통해야 하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전국 10대 도시에서 건강한 교회로 평이 나있는 30개 교회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회에 있어서 지도자 자신의 인격과 준비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응답이 8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⁴¹⁾ 목회자 자신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첫째는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영적인 준비들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학문

40)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106.

41) 최상태,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교회 사역이 가지는 목회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111.

적인 훈련은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영적인 훈련은 적게 강조한다. 그 결과로 많은 목회자들이 지적인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인 생명력에 있어서는 극도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⁴²⁾ 교회들 개척하는 이 일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일은 결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에 대한,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다. 이 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배만 있을 뿐이다. 승리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칭찬과 영광이 있지만, 패배는 뼈아픈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하는 전쟁인 것이다. 승리하면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지만, 패배하면 거꾸로 목회자 자신까지도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생의 처참한 지경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이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신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고, 기르고 양육하는 사람이다. 자신은 영적인 자양분을 어디에서도 공급받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면서 영적인 면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면 쉽게 탈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이다. 교회들 개척한 목회자가 개척 2-3년 만에 탈진하는 경우들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목회자 자신이 자신의 영성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채 교회들 개척했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간헐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항상 충만하게 흐르는 샘이 되어야 한다. 사도들은 세속적인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사역에 필요한 능력이나 도구들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들이 될 수 있었다.⁴³⁾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대략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⁴⁴⁾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 문제의 차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 차원이다. 목회자 자신의 개인 구원의 문제들 공격해 올 때 이에 대한 영적인 누림을 통한 확고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개척의 사역 현장에서 공격해 올 때에는 그 공격의

42) David Watson, *제자도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0), 107.

43)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28.

44)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57.

현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훈련과 말씀묵상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도의 훈련이 준비되어야 한다. 리처드 포스터(Richard J. Foster)는 “묵상은 우리들 내적인 삶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 심령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도 훈련”이라고 주장했다.⁴⁵⁾ R. A. 토레이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기도는 전능하다”고 했다. 엘머 타운즈는 “기도는 복음에 대적하는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역설했다.⁴⁶⁾ 아빌라의 테레사는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뿌리이다. 기도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변화 시키는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다.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이나 사람들의 경우 장벽이 없어지기 전에는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복음과 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그들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 때문에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리로이 아임스(LeRoy Eims)는 실제 하나님의 무한한 힘의 원천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끌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교제라고 역설했다.⁴⁷⁾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들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드린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약 5:16). 수많은 영적 거인들의 강력했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국 초대교회 역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고 난 후에 기도하는 사경회를 하였고, 1907년 평양의 부흥 역사도 기도들 통해서 일어났으며, 한국교회가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라는 기도의 습관을 갖도록 해주었다.⁴⁸⁾ 예수께서도 기도로 온 생애를 덮으셨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역을 수행하시는 매 순간마다, 마지막 십자가들 앞에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지상의 생애를 마치실 때 까지 온 생애들 기도로 점철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형식적인 기도예 따지

45)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58.

46)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195.

47)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21.

48)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 34-36.

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이다. 교회들 개척할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필요할 때만 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현장의 전 순간과 전 장소가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교회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위대했던 목회자들은 언제나 기도의 용사들이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위대한 목회자와 기도는 언제나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앞드린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다. 찰스 스펔전이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라고 했듯이 기도는 아주 힘든 노동이다. 그러나 동시에 스펔전은 “기도란 전능자의 팔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신경이라”고 했다. 기도가 익숙해 질 때까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고, 철저한 반복이 필요한 것이 기도훈련이다. 깊은 기도일수록 더 깊은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앞드리면 바로 기도의 주파수가 맞추어지는 기도는 상당한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 가능하다. 김선주 목사는 매일 한 시간 이상의 기도와 매주 사흘씩의 금식기도, 그리고 매년 1주일간의 금식기도를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하였다.⁴⁹⁾ 주기철 목사는 새벽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으며 신자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새벽이라고 말하면서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⁵⁰⁾ 손양원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옥중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와 감사로 보내면서 만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무엇보다도 기도와 성경 보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였다.⁵¹⁾ 목회자는 이런 기도의 훈련이 준비 되어야 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⁵²⁾ 우리의 교회와 목회가 기도에 참여 있게 해야 한다.

말씀 묵상의 훈련이 준비되어야 한다. 교회들 개척하는 목회자에게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물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고, 성경공부를 시켜야 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 자신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이며, 목회자

49) 김명혁, *한국교회 생점진단*, 107.

50) Ibid., 43.

51) Ibid., 45.

52)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57.

자신의 영적인 불이 타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목회자 자신이 먼저 영적인 양식으로 배불러야 하고, 영적인 불로 뜨겁게 불타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 자신이 배고프고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회들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목회자 자신이 불이 꺼져 차갑고 냉랭한 채 교회들 뜨겁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은 목회자의 영적인 양식이다. 목회자는 먼저 자신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 목회자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은 목회자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그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체내에 흡수해야만 유의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말씀을 소화시키고 흡수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곧 말씀 묵상이다.⁵³⁾ 때문에 목회자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성경을 조직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읽어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목회자는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성경을 통독해야 한다”⁵⁴⁾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설교 본문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힘이 닿는데 까지 막아야 한다”⁵⁵⁾고 역설하는데 상당히 공감한다. 순전히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도가 불이라면 말씀은 장작에 비할 수 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제대로 뜨거워질 수 없는 것이다. 난로 없이 불만 있으면 그것은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신 오히려 온 집을 다 태워버릴 수 있게 되고, 상당히 위험해 지는 것이다. 불을 관리하는 난로가 있어야 하듯이, 기도들 관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때 올바르게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들 통한 성경의 충만함이 목회자들 무기력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학문적인 준비이다. 학문은 무시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이지만 그 영적인 것이 지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앙이다. 지성이 무시되고 진정한 영성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바울 사도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

53)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25.

54) D. M. Lloyd Jones. *목사와 설교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7), 189.

55) Ibid., 190.

며”라고 말하면서 배움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들 개척하는 목회자는 반드시 성경적인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역사신학과 실천신학 등으로 자신의 신앙의 체계를 세워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가 학문적인 준비가 없게 되면 진리를 벗어난 신비주의적인 목회나, 기복주의적인 목회나 세속주의적인 목회로 교회들 세울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신학대학원(M.Div)과정 3년을 목사 안수 받을 자격종으로서의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3년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학문을 잘 갈고 닦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목회자들에게 목회학 박사(D.Min)과정이 보편화 되는 현상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셋째는 기술적인 준비이다. 기술적인 준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물은 중요한 것이지만 댐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온 지경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영성이 물에 비유할 수 있다면 기술은 댐에 비유할 수 있다. 개척을 앞둔 목회자가 준비해야 할 기술적인 준비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는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 둘째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셋째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회는 결국 국 사람이 세우게 된다.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에 실패하면 결국 교회들 세우는 일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교회들 세우는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의 섬세하고 세밀한 양육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⁵⁶⁾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지만(고전 2:14)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받고 세워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17 절에서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역설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회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제자들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익숙히 의하고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⁵⁷⁾ 새로 개척되어 세

56)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181.

57) Billie Hanks,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Discipleship)*.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22.

워지는 교회의 성공은 사역을 할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켜 세우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성경공부와 제자 훈련의 기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일을 하는 능력도 준비해야 한다. 교회들 개척하는 현장에는 해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여 다음 일에 그 결과들 반영하여 실패들 최소화하고 더 발전되어 가게 하는 일을 개척하는 목사가 해야 한다. 때문에 일을 기획하는 방법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그 일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적절한 평가들 할 수 있고 다음 일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밀려오는 많은 일들에 당황하게 되고, 그 일들에 대한 부담에 눌려서 결국 목회가 힘들어지고 목회에 대한 의욕까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팀 사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요한 개념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시지 않으시고 사도들을 세워 함께 동역하셨다. 바울 사도 역시 이방인 세계에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선교 사역에서 ‘팀 사역’을 실제로 적용했다. 비록 바울은 많은 은사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다. 성경에 나타난 그의 팀원들은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대략 38명이며,⁵⁸⁾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의 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들은 실로 다양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각 팀원들은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발휘했고, 각 팀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때 그 팀은 강건했다.⁵⁹⁾ 초대교회가 개척되어 세워질 때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역의 열쇠는 팀 사역이었다. 신약에서의 선교활동과 교회 활동이 거의 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쉽게 발견되는 내용이다.⁶⁰⁾ 사랑과 조화 속에서 함께 일하는 팀 사역은 복음의 본질인 화해와 사랑이 무엇인지들 보여주는 한 표징이기도 한 것이다. 교회들 세우는 일은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교역자도 있어야 하고, 평신도 동역자들도 함께 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려면 함께 할 수 있는 인격도 준비되어야 한다. 목불장군식의 리더쉽 가지고는 교회들 세워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

58)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216.

59) Ibid., 217.

60)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56.

신 공동의 목표들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습관으로 산다. 지식과 기술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으로 일 한다. 특히 목회자는 더욱 그렇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해도 결국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된다. 기술과 지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대로 되어 진다. 때문에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목회자 자신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목회자의 준비는 결국 잘 훈련된 습관과 인격, 그리고 잘 성숙된 성품과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교회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목회자 자신인 것이다.⁶¹⁾

2. 비전과 계획

교회 개척은 비전으로부터 태어난다.⁶²⁾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 그룹이 성취하기 원하는 것에 대한 비전과 꿈이 분명해야 한다.⁶³⁾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외치고 있다. 자신의 비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비전에서 분명한 계획도 나올 수 있다. 비전이 분명해야 전략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 비전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비전이 확고해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비전이 분명해야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 비전은 우리들 사역의 최전선으로 가게 한다. 비전은 중단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비전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장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비전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비전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준다. 비전은 시시비비를 분별하게 한다. 교회들 개척하면서 비전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이다.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는 목회자가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유부단할 수 있으며, 쉽게 요동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중간에 목회들 포기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목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

61)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 82.

62)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85.

63)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33.

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사회와 결코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신실한 교회는 주변의 악한 문화의 압력에 저항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⁶⁴⁾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비전은 어떤 한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어떤 한 그룹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한 시대가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의 부르신 종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예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다. 승천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분의 종인이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을 것을 명령하셨다.

목사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적 시각으로 볼 때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인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목사의 길을 선택하여 목사가 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교회 공동체나 다른 사람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목적만 있을 뿐이다. 둘째는 하나님도 부르시지 않았고 본인도 별로 생각이 없는데 교회나 주변의 사람들이 권하여 목사가 된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없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특별한 목적도 없다. 이들은 그저 교회나 주변 사람들의 요구들 들어주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공동체의 요구나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들 채워주는 목회들 지향한다. 셋째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하게 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교회 공동체의 요구나,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더 중요하다.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고백했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의 계획으로 연결이 된다.

비전은 전력을 구체화 시키는 계획을 통해서 현실화 된다. 비전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될 뿐이다. 계획이 분명하고 치밀할수록 비전이 성취될 수

64)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33.

있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비전 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비전 선언문을 가지는 것과 갖지 못한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3. 사람과 장소

교회들 개최함에서 중요한 한 부분은 사람이다. 함께 시작할 개최 멤버들 구성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특별히 훈련되고 성숙된 사람들로 구성된 개최 멤버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맘과 눈물을 흘리면서 씨들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 개최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들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시듯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이고 축복인 것이다. 합심기도에는 힘이 있다. 직접 교회 개최의 멤버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이 기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된다. 기도의 동역자가 많을수록 새로운 교회의 개최는 쉬워지는 것이다. 말 한 마리는 일반적으로 약 2톤을 끌 수 있지만, 두 마리가 함께 끌면 때로는 23톤을 끌 수도 있다고 한다.⁶⁵⁾

전쟁을 치를 때 승리들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 교두보이다. 교두보는 일정한 부대가 적진에 성공적으로 침투해 나중에 주력부대가 합세할 때까지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아군의 공격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회 개최에 있어서 초기 개최에 함께 참여하는 개최 멤버는 이러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도 함께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먼저 준비하셨다. 120명의 사람들은 3년간 예수에 의해 훈련된 사람들이었고,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이 120명의 사람들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3,000명이 되었고, 그

65)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최하라*. 66.

후에는 5,000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교회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이토록 부흥을 한 가장 큰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계셨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120명의 훈련되고 준비된 개척 멤버로 시작된 이유 역시 결코 적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새로운 개척지에 들어갈 때 먼저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예들 들어 빌립보 교회들 개척할 때에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은 루디아의 집이었고, 루디아 집에서 하나의 핵심 집단이 형성되자 바울팀은 곧바로 도시 심장부들 향해 복음 증거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⁶⁶⁾ 때문에 로버트 로건(Robert E. Logan)은 교회 개척을 사람의 출산에 비유하면서, 교회개척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임신’이라고 하고, 핵심 멤버들 구성하는 것을 ‘태아’라고 하고,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들 드리는 것을 ‘탄생’이라고 했다.⁶⁷⁾ 만일 함께 시작할 개척 멤버가 없다면 예수께서 먼저 함께 사역할 120명을 만드셨듯이, 개척하는 목사가 먼저 전도하여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선 되어야 개척 이후의 목회 사역이 훨씬 풍성하고 역동적일 수 있는 것이다. 핵심 멤버들 확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 교회로부터 함께 개척할 멤버들을 받아서 확보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전도하고 가르쳐서 핵심 멤버들 확보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 방법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신다. 교회 개척의 소명을 받은 목회자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확보하게 하시는 것이다.

개척 멤버는 대단히 중요하다. 때문에 이미 이야기 했듯이 모교회로부터 문제들 일으키거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개척 멤버로 보내거나 선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훈련되고 충성된 사람들로 교회 개척 멤버들 삼도록 해야 한다. 우선 사람이 없다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교회들 함께 세우려고 해서는 위험하다. 조급함은 절대 금물이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Carl G. Jung)이 지적했듯이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인 것이다.⁶⁸⁾ 개척 멤버가 부부가 함께 하는 부부멤버라면 더 좋을 것이다. 부부는 하나의 좋은 팀이 된다.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빌레몬과 압비아라는 좋은 부부 팀과 함께 사역함으로써 사역의 탁월한

66)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79-80.

67)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11.

68)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31.

효과를 거두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열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문 닫지 않을 뿐 아니라, 힘 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

위치, 즉 장소들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개최하는 그 곳에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소들 잘 정해야 하고 연구하고 알아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새로운 교회들 개최하기 전에 그 지역사회와 이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망진단서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⁶⁹⁾ 대체적으로 장소들 결정할 때에 지리적인 위치로부터 출발하는 경우와 목표로 삼을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떤 지역으로 부르셨다고 확신하는 경우와 또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⁷⁰⁾

4. 재정과 후원

재정과 후원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은 교회들 개최하도록 소명하신 하나님께 있다. 교회들 개최하도록 목회자들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재정과 후원을 채워주시는 것은 지극히 교과서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때문에 교회들 개최하는 목사는 자신을 소명하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재정과 후원을 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교회개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르신 분이 교회개척을 명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교회들 개최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교회들 개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목사로 평생을 교회들 섬겨도 책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고 교회 개척을 명하셨다면 부르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재정과 후원은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다. 개최하는 목사가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목회자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말은 아니다. 교회들 개최하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교회들 개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과 후원의 범위 내에서 교회들 개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빚을 힘에 지나게 내면서까지 교회들 개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목회자 자신의 세상적인 정욕이며

69)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89.

70) Ibid., 90.

탐욕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교회 개척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무조건 크고, 화려하고, 많이 교회들 개척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유행하는 물량주의나 성공주의와 같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교회 개척의 재정과 후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후원하심에 따라야 한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교회들 개척하게 하시고, 그런가하면 어떤 목회자에게는 적게 주셔서 적게 교회들 개척하게 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들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들,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들,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들 주고 떠났더니”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밝히시듯이 똑같은 주인의 종일지라도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들 주시는 것이다. 그저 받은 대로 개척하고, 후원해 주시는 대로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되는 것이다. 주인이 돌아와 회계할 때는 주신대로만 계산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5 절 교회 개척의 장애물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언제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반대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없다. 반대의 정도가 심하거나 경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좋은 일이나 위대한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서는 반대가 있어 왔다. 때문에 반대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반대가 없다면 내가 받은 소명에 진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려고 할 때도 역시 반대가 있다. 안디옥 교회도 박해 속에서 세워졌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세워졌음을 기독교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들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⁷¹⁾

71) C. Peter Wagner, *개척하라 (Blazing the Way)*,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2000), 29.

교회 하나가 이 지상에 세워지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단히 큰 사건이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이다. 교회들 세우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반대는 있고, 때로는 대단히 강력한 반대가 있기도 하다. 때문에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반대의 유형들과 견뎌야 할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 적대적인 개인이나 이웃의 반대, 공공기관의 반대, 다른 교회의 반대, 사단으로부터의 반대 등 실로 다양한 형태의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⁷²⁾ 그러나 때때로 박해와 장애는 복음 확장을 위한 귀한 디딤돌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악과 대결하게 될 때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승리가 오고, 새로운 생명이 출생을 하고, 건강하고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며, 목회자의 신앙은 더 깊게 성숙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편안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매일 제거해 주신다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건강하도록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면 과연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겠는가?⁷³⁾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대략 교회들 새로 개척하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대표적인 반대와 어려움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

1. 포화 상태의 교회

이미 교회가 포화 상태라는 현실이다. 이제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들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요, 보이는 것마다 교회다. 교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사실처럼 들린다. 통계청이 4년에 한번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 결과(2003)에 따르면 전국의 복음화율이 25퍼센트를 전후하며 종교인구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지역 종교인구 가운데 47.3퍼센트가 개신교인이었으며, 인천, 경기, 광주, 대전, 전남 지역의 경우는 40퍼센트를 웃돌았으며, 전북의 경우는 55.1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⁷⁴⁾ 심지어는 이제

72)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137.

73)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119.

74) 김배경. "통계청 조사 '우리나라 지역별 종교인구 현황'." *기독신문*, 2005년 9월 28일자.

교회가 너무 많다 못해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제 교회들이 현상유지를 위해서 신자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도 한다. 신자들의 수평이동이 보편화 되었고, 그나마 그 신자의 수마저도 정체되고 있거나 심각하게 이탈하고 있고⁷⁵⁾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2006년 5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는 8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퍼센트로 나타났다.⁷⁶⁾ 한 때 1,200만명까지 이야기했던 개신교인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현재 성장하는 교회의 대부분도 성도의 수평이동이 상당수들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교회들 새로 개척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길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포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참다운 신자는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로마서 14장 7-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들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들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바울이 말한 것 같은 그런 신자들 찾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 마치 천연기념물 같다.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당이고, 발에 걸리는 것이 신자라고 하지만 이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 힘없이 밝히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신자들의 모습이다. 교회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들 위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설교는 많은 신자들의 귀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 결과 교회에는 메시지에 반응하려는 열정이 전혀 없는 단순한 청취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⁷⁷⁾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일깨우고, 철저한 변화와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와 강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교회의 개척은 어쩌면 더욱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2. 작은 교회의 한계

사람들이 더 이상 작은 교회들 선호하지 않는다. 30년 전만해도 천막을 치고 개

8.

75) 류재광, "개신교, 성장둔화와 성도 이탈 심각," *크리스천 투데이*, 2005년 6월 6일자, 21.

76) 박민균, "교계, 자성의 목소리 높아," *기독신문*, 2006년 6월 7일자, 1.

77) Shenk and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30.

책을 해도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교회의 외형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상가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한다. 작은 교회에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큰 교회는 스스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작은 상가교회는 스스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다. 교회에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 교회들 작은 상가에서, 초라하게 개척을 한다는 것은 실패들 이미 안고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비교적 큰 곳에 장소들 마련하고, 개척멤버들도 상당 수 확보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하여 시작해도 개척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도 없이 작고 초라하게 개척을 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이제 대형교회에 대한 선호도는 급속히 줄고 있고, 대신해서 300-500명 규모의 중형교회나, 100-300명 규모의 중소형 교회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⁸⁾ 교회가 작다고 해서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규모의 교회들이었다.

3. 개척비용

상황이 위와 같다 보면 무리들 해서라도 좀 더 크고 세련되게 개척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취급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보니 개척 비용이 만만하지 않게 들게 된다.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몇 억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다. 목이 좋은 곳에서, 비교적 좋게 개척을 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들 개척하려면 그만큼 부담과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개척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과다하고 무리들 해서 개척한 교회가 잘 부흥하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그 무리함 때문에 교회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될 때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 목회자와 그의 가족들이 송두리 채 짊어져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교회들 개

78) 김한수, "개신교인 의식조사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조선일보*, 2005년 1월 28일자, 23.

척한 모(母) 교회 역시 상당한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까지 하면서 교회들 개척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반대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모 교회나 개인이 지불하는 경비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교회의 개척이 복음전도에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⁷⁹⁾ 뿐만 아니라 누가 복음 6장 38절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목회자 윤리

이미 교회가 포화 상태라면 불가피하게 교회가 이미 있는 곳에 또 새로운 교회들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미 있는 교회도 어려운데 불가피한 경쟁 속에서 교회는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있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목회자의 윤리상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의 목회자 서로가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투기하고 분쟁하면서 중요하는 관계들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교회들 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목자의 비유에서 지적하듯이 우리의 관심은 기존 교회 안에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있는 양들의 문제보다도 잃어버린 양들의 문제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75-80퍼센트가 불신자이다. 아직도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더 많다.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 결과 새로운 교회가 어떤 지역에 들어 갈 때에 이미 그곳에 있던 교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여 사실상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교회 역시 교회 출석자의 수가 155퍼센트 증가했음이 밝혀졌다.⁸⁰⁾ 새로운 교회 개척은 결코 목회자 윤리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79)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42.

80) Ibid., 45.

5. 하나 됨의 파괴

목회자 서로간의 반목은 결국 교회의 하나 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하나 됨은 중대한 교회의 사명이다. 주님이 명령하신 중차대한 명령인 것이다. 그런데 교회들 너무 가까이에서 개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투고 중요하게 된다면 교회의 하나 됨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 개척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 됨을 파괴하면서까지 교회 개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냐는 것이다.

물론 기존 교회의 많은 목사들은 만일 어떤 새로운 교회가 그들의 지역에 들어온다면 자기들의 교인들이 그 교회로 옮겨 가게 될까봐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교인을 훔쳐 갔다는 비난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 성장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먹이들 잘 주는 양은 결코 훔쳐갈 수 없다.”라고 역설하였다.⁸¹⁾ 대부분의 기존 교회들이 많은 수의 불신자들을 추수도 하지 않은 채 밖에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교인을 빼앗아 갔다고 비난하기만 바쁜 것이다. 진정한 교회의 하나 됨은 교회 개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개척을 격려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가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81)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46.

제 3 장

교회 개척 전략으로서의 제자훈련

교회 개척은 주님의 주신 역사적인 사명이며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교회들 세우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주셨다. 최초의 교회들 개척하셨던 예수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전략이며,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사용하게 하신 전략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르쳐 주시는 전략이기도 하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전략으로 교회 개척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제 1 절 제자훈련이 교회 개척에서 전략인 이유

어느 목사가 불평을 했다. “교인 중에 신령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날씨의 변화에 따라 심하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무책임하여 미리 알리지도 않고 결석하는 경우가 많다네. 그래서 목회들 그만 둘 생각도 한다네.” 목회자의 어려움은 비단 개척교회만의 일이 아니다. 이 불평을 하고 있는 목사는 자신이 성도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지 않아서 오게 된 결과들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인들이 모이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목사가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삼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면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전략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교회들 새로 개척하고, 교회의 장래들 내다보는데 있어서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들 새로 개척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제자훈련을 가장 중심에 있는 전략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있어서 첫째 관심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었고, 둘째 관심은 이 구원의 메시지들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자신이 주신 사명을 성취할 열두제자들 선택하여 훈련시키는 것이었다.⁸²⁾ 그리고 또 그 제자들에게 너희와 닮은 제자들 삼으라는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주셨다. 그렇기에 교회들 개최하는 목회자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마지막 유언의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하였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들 세워나갈 제자들 만들어 세우는 것이었다. 그의 방법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 좃도록 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라고 강조하고 있다.⁸³⁾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셨다. 성령은 방법이나 기술 가운데 일하시지 않고, 사람 가운데 일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기름을 부으시지 않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분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고 사람 안에 계신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네 동사, 즉 ‘가라’, ‘삼으라’, ‘주라’, ‘하라’ 가운데 주동사는 ‘삼으라’이고 나머지 세 개의 동사는 모두 보조 동사로 되어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제자들 삼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모든 족속에게 ‘가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은 실패한 일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그로 교회에 다니게 하

82) P. T. Chandapilla. *예수님의 제자훈련 (Master: Trainer)*. 신재구 역 (서울: IVP, 1998), 7.

83) Hanks, Shell. *제자훈련*. 46.

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한 사람으로 회심하게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홀로 서게 된 그리스도인은 없다.⁸⁴⁾ 잘 준비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서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안락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쓸모 있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우리는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제자들 삼는 사역은 그 범위에 있어서 세계적이며, 또한 교회의 장래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⁸⁵⁾ 때문에 교회들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 삼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교인도 교회의 당회도 아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⁸⁶⁾

2. 교회의 본질

교회라는 개념은 각 시대마다 약간씩 변해왔고,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교회상은 특정한 교회의 생활과 형식을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개념이 달리 정의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개념의 변화무쌍한 교회사적, 신학사적, 정신사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⁸⁷⁾ 이것이 교회들 개척하려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볼 때 우리는 교회들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면 교회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성과를 얻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에 반

84) Jim Graham,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The Giant Awakes)*, 윤준서 역 (서울: 두란노, 1990), 65.

85) Hanks, Shell, *제자훈련*, 24.

86) 이종운, "성경에 나타난 교회 형태," 옥한흠, *바람직한 교회형태* (서울: 엠마오, 1985), 25.

87) Hans Kung, *교회란 무엇인가?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4), 17.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교회의 본질에는 성성(聖性), 통일성(統一性), 보편성(普遍性)과 함께 사도성(使徒性)이 있다. 사도성은 예수께서 그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의 터 위에 자신의 몸 된 교회들 세우셨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들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였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 하셨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사도성을 분명히 하셨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즉 에클레시아(ekklesia)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단 두 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 즉 바실레이아(basileia)라는 단어는 약 백 번 정도 나온다.⁸⁸⁾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에클레시아 역시 바실레이아들 위한 에클레시아로 나오고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교회들 세우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성을 밝히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스 쾅은 지상의 교회는 사도의 계승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소명자라고 하면서 사도성을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는 다른 본질 즉 성성, 통일성, 보편성 등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사도들은 죽었다. 그러나 사도적 사명은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도적 사명은 교회가 계승한 것이다.⁸⁹⁾ 모든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이다. 교회로 부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별 없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성을 계승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그룹만이 사도성을 계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직자나 평신도들 가릴 것 없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신자는 그 사도성의 계승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설교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기초 공사에 의해 세워진 성령의 성전이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봉사에 의해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도들에 의한 전권적인 사명이 온 교회에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내

88) Kung, *교회란 무엇인가?* 47.

89) Ibid., 146.

적인 실질적 연속성에 의한 영적 계승이라고 말한다.⁹⁰⁾ 그렇다면 평신도들 깨워 그들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예수께로 받은 명령인 동시에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지는 작금에는 더 절실하게 그 중요함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3. 성경적 목회방식

목회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목회는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하는 목회가 잘하는 목회일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가 될 수 있을까? 현재 나의 목회는 잘하고 있는 목회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목회자의 고민이며, 그 답을 찾기 위한 것은 목회자의 몸부림일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목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하는 목회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목회이다.⁹¹⁾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진정한 목회라 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인 것이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부름을 소명으로 받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성경은 목회가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목회자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역자들 선발하고, 그들을 훈련 시켜서 그들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동기들 유발시켜서 그들로 주의 교회와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사람인 것이다.⁹²⁾ 목회는 성도들 온전케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들 세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제자 삼으라”는 예수께서 주신 지상명령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 실제로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일이었고, 그의 3년간의 공

90) Kung, *교회란 무엇인가?* 147.

91)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118.

92) 김상복, *교회와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엠마오, 1987), 195.

적 사역의 대부분은 이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고, 멜레야 벨 수 없도록 예수께 메인 사람들이었고, 예수의 참모가 되고, 몰려대가 되고, 오른 팔이 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었다.⁹³⁾ 예수께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수 하였고, 자신의 모든 정성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평범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꿈을 키워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 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대사명(마 28:18-20)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들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들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들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들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7-8)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는 모두 예수들 위해서 살다가 예수들 위해서 죽도록 만드셨다.

이에 대해서 옥한흠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제실 동안 일기장 한 줄을 남겨 놓지 않으셨고, 자기들 기념할 기념비 하나 세워놓지 않으셨다. 그저 평범한 제자들 몇 사람 뿐 이었다. 그만큼 그에게는 소수의 제자 만드는 작업이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⁹⁴⁾

우리가 목회의 진정한 모습을 예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면,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진정한 목회일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적 목회의 방법은 제자 삼는 방법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이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게 될 때 어떤 목회 방식을 취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⁹⁵⁾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상의 풍습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변하지 성경적인 목회의 방법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 삼는 것이다.

4. 변하지 않는 목회 원리

‘원리’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혹은 ‘행위의 규범’을 일컫는다. 우리가 ‘목

93)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127.

94) Ibid., 128.

95)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11.

회의 원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목회의 근본적인 이치와 목회의 사역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의 변하는 않는 원리는 무엇일까?

목회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 목회들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 목회들 하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목회자는 자기 스스로 선 사람이 아니다. 목회자로 부르신 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그 분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다. 목회자들 부르신 분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분이 명령하신 분부는 지상명령(마 28:18-20)이다. 다시 말해서 지상명령, 즉 제자 삼는 것은 목회의 근본 이치이며, 동시에 목회자의 사역 규범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원리에 충실하셨고, 원리들 철저히 준수하셨다.⁹⁶⁾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원리가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는 잘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은 단순한 전도명령으로 변해버렸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몰이해 속에 빠져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소수만을 선택하여 그들에게만 집중하게 될 때 그것은 편애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반대들 한다. 그러나 장래들 내다보면서 항구적인 교회의 세워짐과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짐을 원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시행하셨던 이 원리가 정당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리대로 실행할 때 옳은 결과들 얻게 된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이 원리들 벗어나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이 원리들 배울 것이며, 또 언제 이 원리들 따르는 목회들 할 것인가들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 현대의 사조는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은 진실에서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믿도록 만들어 놓았다. 탐욕을 대망이라고 일컫고, 축재들 절약이라고 일컬으며, 지나친 절약을 검소함이라고 말하고, 욕심을 근면이라고 평가한다. 병든 사회들 본받는 것은 우리들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깰 때인 것이다.⁹⁷⁾

96) Hanks, Shell. *제자훈련*, 50.

97)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120.

제 2 절 제자의 개념

예수께서는 “가서 제자들 삼으라”고 하셨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제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제자’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는 많은 차이가 보여 진다. 과연 제자는 누구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는 옳은 제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제자의 올바른 개념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제자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몇 가지 질문

제자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던져 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 첫째 질문은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다 예수의 제자라 할 수 있는가? 둘째는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다 예수의 제자여야 하는가? 셋째는 교회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가? 사람마다 서로 다른 답을 하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예”라고 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모두 예수의 제자여야 한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예수의 제자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의 제자여야 한다. 모든 믿는 자는 다 예수의 제자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제자들의 수준은 다르다는 것이다.⁹⁸⁾ 어떤 제자는 더 성숙되어 있고, 어떤 제자는 아직 미숙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는 모든 제자가 다 성숙된 제자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제자도 아니며, 모두 제자일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98)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138.

2. 제자의 개념 정리

믿는 자는 모두 제자이다. “믿는 자는 다 제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모든 믿는 자는 다 제자인 것이다. 제자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으면 이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마치 이제 막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훈련병도 분명한 군인이듯이 말이다. 훈련을 받고 나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대를 하면 군인인 것이다. 단지 좀 더 능숙하게 훈련된 군인이 있고, 아직 미숙한 군인이 있을 뿐이다. 제자도 마찬가지이다. 훈련을 다 받고 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이미 제자가 된 것이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되고 능숙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바로 제자라 부르셨다. ‘제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름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신분귀천 가릴 것 없이 예수께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예수의 제자인 것이다.

마태는 열 두 사도 뿐 아니라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 보았고(마 28:19-20), 마가는 열두 명으로만 국한시켜 제자라고 보았다(막 3:13-18, 4:34-35). 반면 요한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는 제자라고 보았고(요 8:31), 누가는 예수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저하지 않고 제자라 불렀다(행 2:44; 4:32).⁹⁹⁾ 그러므로 제자훈련이란 예수들 주로 고백하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예수처럼 살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옥한흠은 그의 책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에서 부름 받은 제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 개념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¹⁰⁰⁾

첫째는 위탁자이다. 제자도에는 예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위탁이 들어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 전적으로 위탁하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 합당치 않다’고 하거나,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제자는 전적인 위탁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27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99)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129-131.

100) Ibid., 140-170.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5-27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적 위탁을 요구하셨다. 진정한 포기과 완전한 위탁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¹⁰¹⁾ 전적 위탁은 전 인격적 위탁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독특하고 특별한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온전한 인격적 위탁을 말하고 있다. 모세에게 ‘네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격을 갖추었건, 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의 유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적인 위탁을 명령하셨다.¹⁰²⁾ 기드온에게도 ‘네가 므낫세의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네가 네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중요한 것은 너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전적 위탁을 명령하신다.¹⁰³⁾ 이것은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한 내가 세상 끝날 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적 위탁을 명령하셨다. 그렇다. 지금도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합당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제자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 주인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람을 말한다.

둘째는 종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자신을 종거 하게

101) 변개창, *작은 목자훈련* (서울: 두란노, 1992), 36.

102)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12.

103) Ibid., 15.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상에 나가 자신을 증거 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다. 열 두 사도는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 하며 그의 사역을 목격하였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는 법과 삶의 법을 배우고 난 후, 마침내 도시와 고향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 되었다.¹⁰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분명히 제자들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목적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바로 그가 예언했던 그 증인들이 탄생하여 이루어진 거룩한 무리들이었던 것이다.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의 순교가 그들을 증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증인됨이 순교자로 만들었던 것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¹⁰⁵⁾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들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진리를 증거 하는 증인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위험과 그들이 공회에 어떻게 끌려가게 될 것인가, 유대교 속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불러 나가서 어떻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다.¹⁰⁶⁾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는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신 것이다. 제자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과 같은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¹⁰⁷⁾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려는 결단을 한 자들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다. 지금도 매년 15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로 드리고 있다.¹⁰⁸⁾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말씀 하시면서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자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음을 밝히고 제신다. 이 말씀의 참 뜻은,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

104) A. B. Bruce, 열 두 제자 훈련 (*The Training of the Twelve*), 김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119.

105)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53.

106) Bruce, 열 두 제자 훈련, 135.

107) Watson, 제자도, 17.

108) Wagner, 개척하라, 30.

님을 따를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브루스(A. B. Bruce)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학교의 정문에는 ‘기꺼이 자기들 포기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곳에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적혀있다”고 역설하였고,¹⁰⁹⁾ 하나님께의 일에 뛰어들어 열매를 남긴 위대한 제자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고난의 종인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존오와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위대함을 소유한 자로서의 대가라고 역설하였다.¹¹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고난을 각오하는 종인이어야 한다.

셋째는 종이다.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다. 제자에게 종의 직분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므로 꺾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종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종으로 공생애를 사셨고, 종의 모습으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가올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까 하는 문제들 놓고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15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시면서 제자의 삶이 종의 삶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셨다.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주종의 올바른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도 그렇게 하기들 원하셨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 우리는 얼마나 크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 논쟁과 다툼이 벌어졌고, 질투와 시기가 분노와 미움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의 악마를 내어 쫓고 당신의 온유와 겸손,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배우기들 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이 되기들 가르치셨다. 하늘 왕국이 도래할 때 이러한 겸손의 섬김이 오히려 고귀한 자리에 앉게 됨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은 독재자나 슈퍼스타나 독불장군을 모시도록 되어있지 않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종 된 지도자들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종’으로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롬 1:1).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기는 종의 균형 잡힌 모습이다.¹¹¹⁾ 제자는 섬기는 종

109) Bruce, 열 두 제자 훈련, 202.

110) Ibid., 470.

이지만, 이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반해 사람은 섬기지 못하는 경우나, 사람은 잘 섬기는데 하나님은 잘 섬기지 못하는 불균형의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균형 있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넷째는 사랑의 사람이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매우 깊고 강력한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여 우리들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었다.¹¹¹⁾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당신 같기를 원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들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들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사랑에 매인 사람이어야 한다. 오직 사랑에 매이고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도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고 언급한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 소리에 불과하며, 예언과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제자로서 성공적인 사역과 열심히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것도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역설하였다. 로마서 14장 7,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들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들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어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전심전력하는 태도와 열정은 그들 마음속에서 불

111) Ron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Good Thing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서울: IVP, 1995), 54.

112) Bruce, *열 두 제자 훈련*, 330.

타고 있는 사랑의 결과였다.¹¹³⁾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들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사랑을 결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으며 그 사랑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제자로서 살 때 언제든지 현재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는 사랑을 측정하고 확인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제 3 절 교회 개척 전략으로서의 제자훈련

전략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탁월하고 좋아도, 전략이 좋지 못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는 쉽지 않거나, 전혀 다른 목적을 이루게 될 수 있다. 목적이 좋을수록 전략 역시 좋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들 개척하는데 가장 탁월한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훈련이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이 교회 개척을 올바른 목적으로 가게 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럼 교회 개척 전략으로서의 제자훈련을 살펴보자.

1. 원리

예수께서 처음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초대 교회가 처음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하였을 때 제사장들은 놀라고 불쾌했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제사의 한 부분을 감당할 분배를 했고,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를 배웠다. 제사장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고, 서른 살이 되면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들만의 고유한 특권이였다.¹¹⁴⁾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사장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도라 하셨고, 역시 제사장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택하여 초대교회의 집사들 세우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들 따르기 전에 일반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다. 유대사회에서 인종된 랍비학교에서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설교를 하기도 했다. 이것은 이제 일반 평신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사역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인 것이었다.¹¹⁵⁾ 실제로 오늘날 교회

113)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91.

114)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83.

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방법이나 기술, 또는 프로그램이나 거대한 조직을 찾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을 찾으셨다. 그것도 소수 선택의 원리를 제시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 혹은 대중을 중요시 할 때 예수께서는 전략적으로 소수 정예의 원리를 선택하신 것이다.¹¹⁵⁾ 소수인 12명을 중심으로 70명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70명을 통하여 120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 같다. 그리고 그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500여 형제들을 이끌게 하신 것으로 보여 진다.¹¹⁷⁾

제자훈련의 중요한 원리는 평신도가 사역자, 내지는 지도자로 세워져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는 어느 특정한 대상이나, 어느 특권층이 있어서 그들만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독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3:5-6),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도록 훈련된 사람(마 29:20)은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고, 그들이 교회들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평신도들 세워 함께 동역하는 원리인 것이다.

2. 가치

현대 사회의 자유방임이 법과 충성을 몰아내어 버렸다. 신앙 훈련을 율법주의라고 조롱하고 있다.¹¹⁸⁾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강력한 훈련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에는 분명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 가치는 교회들 새롭게 하며, 목회자에게 힘과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자아를 되찾게 한다. 신앙 인격은 훈련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가치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회의 정체들 회복할 수 있다. 교회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 받은 공동체이다.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단체가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

115)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혁*, 84.

116) 변재창. *작은 목자훈련*, 81.

117) Ibid., 82.

118) V. Raymond Edman. *인생훈련 (The Disciplines of Life)*, 권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1.

리스도의 몸이다. 서로 긴밀한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고, 각 지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성취해야 할 사명을 유기체적인 협력으로 완수해 내는 공동체이다. 결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개개인의 조합이 아니다. 작금의 교회들 보면 모여 있기는 하지만 모래알 같고, 죽은 조직과 같은 경우가 적지 않다. 제자훈련은 교회들 조직체적인 역기능에서 상호 협력하며 사역하는 유기체적인 순기능으로 바꾸어 놓는다. 제자훈련은 교회로 예수께서 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다시 보내셨는지를 알게 함으로 그 정체들 회복하게 하는 가치들 가지고 있다.

둘째는 평신도로 하여금 자아에 눈뜨게 한다. 평신도는 교회에 있어서 객체인가 주체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의 평신도들이 자신들을 교회의 객체로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보호 아래 머무르기만을 원하고 있다.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조차 확신이 없으며, 헌신적인 삶은 너무 결여되어 있다.¹¹⁹⁾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같은 평신도들 양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²⁰⁾ 그레그 옥덴(Greg Ogden)은 “제도적 교회는 목사들 우두머리로 하는 공공기관과 같다. 성직자는 조직의 피라미드 정상에 안락하게 앉아 있다. 그들은 종교 전문가들이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역자들”이라고 주장했다.¹²¹⁾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평신도 운동이다. 평신도는 결코 교회에서 객체가 아니다. 목회자와 함께 중요한 주체인 것이다. 1퍼센트 밖에 안 되는 목사가, 99퍼센트의 평신도들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평신도들이 주체로서 적극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무슨 일든지 피동적으로만 반응하는 무력한 평신도들로는 강력한 교회들 세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가장 효과적인 복음 증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론적인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 보다 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직접 볼 때 복음이 훨씬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¹²²⁾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

119) Watson. *제자도*, 83.

120)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173.

121) Greg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The Reformation)*.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0), 25.

122) Town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혁*, 42.

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골 2:23)라고 하면서 전심전력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풍조는 “적당히 하라.”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교회 안의 많은 평신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시대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말씀과 훈련으로 깨워야 하고,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대로 전심전력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성도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규모 없고, 게으르며, 되는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을 그대로 두게 해서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은 뿌리 깊은 습관의 노예들이다.¹²³⁾ 그런 본성에서 깨어 나와서 부지런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해야 한다.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기독교는 시초부터 평민 운동이었고, 교회사에 있어서 개혁이나 부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성직제도에 흡수된 평신도들의 권리와 의무의 재주장이었다”고 주장한다.¹²⁴⁾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평신도에게서 성경을 빼앗아가고 있다.¹²⁵⁾ 예수께서는 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신과 자신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찾아 그 사람들의 영을 깨워 그들을 영적 지도자들 세우는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하셨고, 그 결과 초대교회들 책임질 지도자들이 배출된 것이다.¹²⁶⁾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현재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현재의 지도자인 것이다. 가까스로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뿌리들 깊이 내린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¹²⁷⁾ 성숙한 그리스도인 없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참된 평신도들 잃어버린 교회는 중세 암흑일 수 있다. 평신도들을 잃어버린 성직자들이 군림했던 중세 교회가 영적 암흑천지가 되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 깨워야 한다. 제자훈련은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 깨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이라

123)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19.

124) John R. W.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One People)*, 김기영 역 (서울: 엠마오, 1989), 8.

125) 홍정길, “선교단체 운동의 장단점,” 옥한흠, *바람직한 교회형태* (서울: 엠마오, 1985), 116.

126)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48.

127)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24.

하겠다. 앞서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죽을 사람 열 사람만 세워지면 그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문 닫지 않는다. 오히려 더 힘 있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주를 위해 살고 죽을 신자가 없는 교회라면 언제나 불안정한 것이다.

셋째는 목회자의 제자리들 회복할 수 있다.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모든 목회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며, 그 답을 찾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목회자가 이 질문이 없거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목회는 탈선을 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돈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말로서 ‘어긋난 뼈들 바로 맞추다’라는 뜻의 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일하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¹²⁸⁾ 목회자는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목회는 어긋난 성도들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지상명령에서도 발견되는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기 까지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들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적인 무지에 있는 성도들을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 영적 지식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17절의 “내 양을 먹이라”와 “내 양을 치라”는 말씀 역시 그저 보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참된 목회는 훈련을 통해서 양을 강하게 만들어 스스로 생산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¹²⁹⁾ 만일 목회자가 보호, 또는 보관 목회만 한다면 평신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회의 제자리는 성도들 보호, 또는 보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훈련시키고 양육해 내는 것이다. 목사의 참된 사역은 성도들 온전히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일이다. 목사의 제자리는 교회의 객체가 되어 본연의 소명을 모른 채 그저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즉 평신도들을 각성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 교회들 세우게 하는 자리인 것이다.¹³⁰⁾ 평신도들 신뢰하지 못하는 목사나 자기들 지나치게 과장하는 목사는 사실

128) Graham. *꿈자는 거인을 깨운다*. 20.

129)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175.

목사 자신이 제자리들 모르고 있는 것이다. 131)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목회자는 결코 좋은 목회자가 아니다. 목회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고 배치시켜 주기 위해서 있는 자리이다. 제자훈련은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의 제자리들 찾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목회자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넷째는 교회들 건강한 체질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작금의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마치 평신도가 담임목회자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병적인 체질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132) 사실 교회의 주요 사역인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사역을 목회자 혼자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과중한 사역의 짐이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독감 역시 대부분의 목회자들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병적인 피로감과 의욕 상실로 인해서 목회들 중단 하든지, 목회들 대충하려는 목회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목회자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로 그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목회자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들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목회자 혼자 뛰는 교회와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뛰는 교회가 얼마나 다르겠는가? 어느 쪽이 추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겠는가? 어느 쪽이 더 역동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겠는가?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교회 부흥의 열쇠는 성도들의 질의 문제이다.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뒤집었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거대한 유대인 민족을 이룬 것이다. 133)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다. 양적인 교회의 팽창, 혹은 성장은 일시적일 수가 있다. 언제든지 현재의 도피처나 감상적인 위로들 찾아서 구름 메처럼 군

130) 변개창, *작은 목자훈련*, 14.

131)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114-115.

132)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177.

133) Hanks, Shell, *제자훈련*, 104.

중들은 교회로 몰려 들 수 있고, 진정한 회개와 각성, 그리고 훈련으로 세워지지 않은 신자들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풍속을 따라 갈 수 있으며, 썰물처럼 교회들 떠날 수 있다.¹³⁴⁾ 한국교회가 영국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을 따라가고 있다는 걱정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 밖을 향한 집중을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몰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교회의 장래를 생각할 때 교회의 얼굴이요 주체인 평신도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내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 없다. 한국 NCD에서 교인 500명 이상 되는 31개 교회들 설문 조사 했는데, 교회 건강 지수가 60이상 나온 교회는 모두 제자훈련 하는 교회였다는 결과 보고는 이들 잘 입증해 주는 것일 것이다.¹³⁵⁾ 이것이 제자훈련의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3. 요소

제자훈련을 하기 위한 요소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없이는 제자훈련은 불가능하다. 제자훈련이 단순한 성경공부는 아니다. 그러나 성경 없는 제자훈련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도 성경이야말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들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였다. 4복음서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대략 66회 이상 성경을 인용하셨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90여회나 성경을 인용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최우선적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일이었다.¹³⁶⁾ 일시적인 여론과 영원한 진리는 분명 다른 것이다.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시대적 여론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134) 변재창, *작은 목자훈련*, 12.

135) 최상태, *목회본질을 일깨워 건강한 한국 교회들 만드는 데 기여했다*, CAL세미나 20주년 기념 전국 CAL-Net 팀장 좌담회, *Disciple*, 2008년 6월호, 5.

136)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221.

함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시대적 여론이나 풍미하는 사상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다. 히브리서 4장 12-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들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과 혼, 마음과 생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제자훈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개방하고 드러내는 일은 성경 앞에 세우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때 자신을 오픈하고 드러내어 치유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며, 치유되고 성숙되어야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하려고 할 때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끝고루 배우고 연구하며 날마다 깊이 묵상하여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는 지도자의 모범이다. 평신도 훈련이라는 문제를 놓고 고심해 온 목회자라면 누구나가 곧 목회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는다.¹³⁷⁾ 예수님의 교육은 상황적이었다. 랍비의 학교처럼 규칙적이거나 구조에 매이지 않았다.¹³⁸⁾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따라오게 하셨다. 열 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들 듣고 보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완벽한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장래의 사역을 위하여 필수적인 준비였던 것이다.¹³⁹⁾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력한 능력과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말씀과 생활이 일치하는 모범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활을 개방했고 동거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3-24절에서 “제자들을 몰아보시며 종

137)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110.

138) Tom Sine,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 (Taking Discipleship Seriously)*, 주순희 역 (서울: 두란노, 1990), 98.

139) Bruce, *열 두 제자 훈련*, 57.

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의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보고 듣는 훈련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초기 사역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들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면서 자신이 먼저 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하려는 목회자는 먼저 본인이 본이 되는 생활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꽤 훈련자들이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기탄없이 또는 충분히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정체들 드러내고 자신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실 된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진실된 본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도자가 선택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표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을 완전히 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가끔적이면 함께 지내면서 지도자 자신의 모습과 경험들을 그대로 나누어 주는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지도자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자기가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이 가장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꽤 훈련자들이 훈련시키는 지도자의 가장 소중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간과 정력과 주어진 자원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¹⁴⁰⁾ 그들과의 이 위대한 과업이 마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많은 관심사와 그 외에 유용하고 매력적인 많은 것들,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한 쉼의 모든 유혹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⁴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적과 사역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보고 듣게 하셨다. 기적의 놀라움은 잠깐이지만, 사랑과 은혜의 놀라움은 일생을 가는 것이다.¹⁴²⁾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투명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화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회

140) Chandapilla. *예수님의 제자훈련*. 33.

141) Ibid., 30.

142) Bruce. *열 두 제자 훈련*. 67.

칠한 무덤 같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거나, 인위적인 인상을 주려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적인 생활을 감추어 두고자 하며, 혼자 있기들 좋아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은둔자가 되려하는 사람이라면 제자훈련의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¹⁴³⁾ 그런 사람에게는 그들 애호하고 열광하는 팬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는 없다. 그저 분주하게 활동을 할 수는 있다고 해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양육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¹⁴⁴⁾ 때문에 제자훈련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제자훈련의 성패는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에서 판가름 난다. 피 훈련자들이 지도자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의 보여주는 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할 때 되어 진다. 지도자에게 본받을 것이 없다고 판단 될 때 그 제자훈련은 조만간 따분하고 힘든 과정이 되어버리고, 곧 중단되게 된다. 때문에 말씀에 깊이 뿌리들 내리고, 하나님의 뜻과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 전적으로 헌신된 지도자의 모범이 없이는 성공적인 제자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도자는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먼저 본을 보이는 모범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상당한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들이 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소그룹 환경이다. 인간에게는 함께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로의 관심사와 삶을 속 깊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만남과 나눔은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필요한 것이다.¹⁴⁵⁾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게 될 때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 신자가 예수께 부름을 받아 교회로 들어서게 되면 세 종류의 그룹과 만나게 된다. 하나는 모두 함께 모이는 대그룹이다. 또 하나는 몇 사람이 모이는 소그룹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과 친한 친구와 만나는 일대일 그룹이다. 그런데 지도자와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승리와 실패의 신앙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되어 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은 소그룹 환경임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려진 바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의 경험 속에서 그 어느 것도 전체로

143) Chandapilla. *예수님의 제자훈련*. 50.

144)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47.

145) Nicholas et al., *소그룹운동과 교회 성장*. 14, 125.

모이는 대예배나 교회의 성대한 행사들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⁴⁶⁾ 대그룹이나 일대일 그룹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실행할 수 없고 열매를 얻을 수는 없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친밀하게 신앙과 삶을 나누고 함께 할 소그룹이 없다면 그 신자는 결국 쓰러지고 말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12명 소그룹으로 부르셨고, 120명의 제자들도 10명씩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훈련을 시키셨음을 알 수 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 3장 13-19절, 누가복음 6장 12-16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12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12명의 사도들 역시 베드로와 빌립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들 리더로 하는 4명씩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베드로와 빌립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이름은 언제나 첫째와 다섯째와 아홉째의 그 자리들 지키고 있으며,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역시 그 소그룹 내에서만 순서가 바뀌고 있을 뿐 다른 그룹으로 그 이름이 옮겨 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현대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는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함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 교회가 행했던 '가정교회', 즉 소그룹이다. 영적 성숙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작은 규모의 소그룹에서 같이 공부하고 나누는 것이다.¹⁴⁷⁾ 소그룹은 단순히 생산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새로운 의미들 부여해 주며, 개인의 인격에 까지 변화들 일깨워 준다.¹⁴⁸⁾ 우리는 혼자서는 존재하기 힘들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긴밀한 소속감이 필요한데 그 친밀한 소속감은 소그룹에서 가능한 것이다. 폴 투루니에(Paul Tournier)는 "이 세상에서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¹⁴⁹⁾ 진정한 양육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며, 진정한 공동체적인 교제 역시 소그룹에서 이루어진다. 교회는 여러 소그룹들이 모여

146) Nicholas et al., *소그룹운동과 교회 성장*, 20.

147) Ibid., 16.

148)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243.

149)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19.

서 하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들 이루게 된다. 소그룹에는 융통성과 이동성, 수용성과 인격성, 그리고 복음전도들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¹⁵⁰⁾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하려는 목회자는 소그룹 환경에 익숙한 배움과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넷째는 교재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고 하지만 적절한 교재가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위한 교재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교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재들 사용하는 목회자 자신이다. 목회자의 영성과 경험과 그의 소유한 모든 것이 교재들 다를 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 역시 중요하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해도 도구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재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그것은 그 교회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각 교회마다 환경과 문화와 학력 등 다양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어떤 한 교회에 적합한 교재가 모든 교회에 다 적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맞는 교재들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자신의 교회와 신자들의 수준과 여건에 맞추어서 교재들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제자들의 경험이다. 제자들은 이론만 배우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장 경험을 하게 하셨다. 실제적인 일에 가담시키셨다. 실제적인 과제들 주셨다. 전도의 현장 등 실로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셨다. 때로는 그들이 인간적인 능력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또 그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도전하게 하셨다.¹⁵¹⁾ 또한 같은 일을 반복하여 수행하게 하시기도 하셨다. 반복을 통하여 성숙되게 하셨다. 교육과 훈련은 다른 것이다. 교육이 이념과 개념의 전달을 요구한다면, 훈련은 습득된 기술과 삶의 전달을 요구한다.¹⁵²⁾ 때문에 제자훈련에 있어서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배운 것을 직접 실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와 시행착오도 직접 경험해보면서 더 성숙된 제자로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에는 반드시 실제 사역의 현장이 병행 되어야 효과적인 제자훈련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꾀 훈련자들에게

150) Nicholas et al., *소그룹운동과 교회 성장*, 23-24.

151) Chandapilla, *예수님의 제자훈련*, 63.

152) Hanks, Shell, *제자훈련*, 114.

그들의 삶과 관련되는 업무들이나 과업을 맡겨야 한다. 단순히 피 훈련자의 시간이나 계획을 매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을 맡겨서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은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해야 하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숙된 제자로 서게 해야 하는 것이다.

4. 목적

훈련의 목적은 인간의 전적인 변화에 있다. 파괴적인 옛 사고와 습관을 생명의 새로운 사고와 습관으로 바꾸는데 있는 것이다.¹⁵³⁾ 훈련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훈련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종교적 의무를 열성으로 수행하면서도 변화들 받지 못하고 있다.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 가지로 말할 하지만, 크게 다음 몇 가지를 말할 수 있겠다.

첫째는 참된 예배자들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에 눈길을 몰리는 종교들 향해 표류하고 있다. 강조점을 예배 의식에만 두고 예배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종교들 향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필요에 더 강조점을 두는 인간 중심의 기독교일 뿐이다.¹⁵⁴⁾ 우리는 기껏해야 전통적인 교리, 따뜻한 인간성, 활기에 찬 분위기, 종교적 기쁨 등에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보다는 봉사에 더 헌신하여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만족해한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특별한 백성을 삼으셨다. 자기들 위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린다.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께 참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찾으신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다. 교회의 제일의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있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들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배는 첫 번째의 가장 큰 제명이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153)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95.

154) Graham.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43.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이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이다. 예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첫 번째 표시이다. 예배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이다. 예배는 초대교회의 처음 특징이었다.¹⁵⁵⁾ 주님이 진실로 주님이 되시려면 예배가 우리의 생활에서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¹⁵⁶⁾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교육을 시키는가? 참된 예배자들 만들기 위해서이다.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는가? 역시 참된 예배자들 만들기 위해서이다. 무엇을 위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는 것인가? 역시 참된 예배자들 그 이방 민족에서 만들기 위해서이다. 무엇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시키는 것인가? 역시 참된 예배자들 만들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제자훈련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훈련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제자훈련은 실패한 것이다. 제자훈련의 제일의 목적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에 들어가게 하는 첫째 방법은 인간 주도적인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경험은 사역의 다른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¹⁵⁷⁾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제자는 목회자의 제자도 아니고, 교회라는 조직의 제자도 아니라 예수의 제자여야 한다. 때문에 먼저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작은 예수들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제자훈련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¹⁵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게 하는데 실패한 제자훈련이 주변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제자훈련 무용론’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 부르신 목적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155) Graham.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46-48.

156)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231.

157)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30.

158) Chandapilla. *예수님의 제자훈련*, 9.

서였다. 세상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험악한 길이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죽을 수도 있는 길이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의 부르심은 결코 평범한 부르심이 아니었다. 주일에 잠깐 모임에 참석하거나, 약간의 봉사들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를 것을 기대하셨고, 십자가를 질 것을 기대하셨으며, 필요하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까지도 기대하셨던 것이다.¹⁵⁹⁾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순교자가 많이 있음도 사실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들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들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제자의 삶을 밝히고 있다. 분명한 것은 첫 제자들을 부르신 이래로 지금까지 그의 의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제자는 생명을 구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버리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제자훈련의 중요한 목적은 결국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위기의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에 데리고 오는 ‘와 보라’식의 전도가 없음이 문제인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는 왔지만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제자 삼는 사역이 없음이 문제인 것이다.¹⁶⁰⁾ 양육 훈련이 없이 그저 데리고 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무시한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는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자로서의 부름도 동시에 받은 것이다.¹⁶¹⁾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지상명령에서도 제자 삼는 명령을 주셨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159) Sime.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 29.

160) 변개창, *작은 목자훈련*, 22.

161) Sime.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 90.

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실을 맺게 할뿐만이 아니라,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신다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도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삼십 배, 혹 육십 배, 혹 백배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사야서 60장 21-22절에서도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이 지금은 비록 작은 자이고, 약한 자이지만, 장차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을 기대하심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대로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제자는 자기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자신만 예수들 닮아 예수들 위해 살다가 예수들 위해 죽으면 되는 사람도 아니다. 제자는 자신이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또 자신을 통해서 예수들 닮은 제자, 즉 자신과 같이 예수들 닮고, 예수들 위해 살다가 예수들 위해 죽을, 그리고 그 역시도 죽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놓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일, 즉 전도인 것이다.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평신도는 목회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¹⁶²⁾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의 목적 역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하는 것을 보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며 성장하여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또 다시 가르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제자들 재생산 할 수 있는 제자들 만들어 내는 것이다.¹⁶³⁾ 그 어떤 활동으로도 생산과 재생산을 대신 할 수 없는 것이다.¹⁶⁴⁾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다가갈 어떤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따를 사람들에게 대해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이다.¹⁶⁵⁾ 이것은 제자훈련

162)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45.

163) 변재창, *작은 목자훈련*, 20.

164) Walter A.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Disciples are Made-not born)*, 네비게이트 출판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95), 10.

165)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167.

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다.

다섯째는 탁월한 예수의 제자들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제자훈련의 수준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기를 촉구하였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재의 수준에 그저 만족하려는 태도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 그저 적당히 감싸주고 넘어가는 것이 은혜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이 다분히 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미지근한 반응을 알고서도 그저 그 정도로 만족하려 할 때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성호가 탁월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뜻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탁월하다.¹⁶⁶⁾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주신 일이라면 이 일 역시 탁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라면 양육되고 훈련되는 그 주님의 사람들도 당연히 탁월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신이 탁월해야 함을 알게 하여 그들 역시 탁월함을 추구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탁월한 수준에 이르려고 열심히 경주하는 사람은 일반 범인들과 달리 위대한 사람들로 바뀌어 가게 된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일반 범인에서 출발했으나, 하나같이 위대한 영적 거인들이 되어 인생을 마쳤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제자훈련의 중요한 목적은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들 위한 탁월한 그의 사람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제 4 절 제자훈련을 실패하게 하는 오해들

교회 개척에 있어서 제자훈련이 가장 탁월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으로 교회들 개척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제자훈련을 실패함으로써 교회 개척을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 왜 제자훈련이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 왜 제자훈련을 실패한 후에 제자훈련의 무용론까지 말하게 되는 것일까? 제자훈련에 그토록 귀한 가치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재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에 대해서 어려

166) E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66.

위하는 목회자들이 많을까? 제자훈련이 교회 개척에 탁월한 전략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오해들이 있을까? 이제 그 오해들을 알아보자.

1. 목적에 대한 오해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미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은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현실적으로 신자들의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거의 없어 보인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개종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전의 종교가 개신교인 경우가 45.5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불교로 개종한 사람 가운데 이전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78.9퍼센트라는 것이다.¹⁶⁷⁾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목회자들 역시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물량주의에 의한 목회들 지향하고 있음이 여러 정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하든 신자의 수만 늘려 보자는 교회 성장과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신자의 숫자들 거짓으로 늘려 홍보하는 형태가 보편화 되고 있다. 문화 관광부가 2000년 말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 신자가 8200만 명이고, 그 가운데 개신교가 1,872만 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한다.¹⁶⁸⁾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숫자의 부풀림인가. 80년대만 해도 '대형교회'라는 개념은 없었다. 목사가 대형교회나 자가용을 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그런 것을 기도하거나 욕심낼 줄도 몰랐으며, 그것이 욕심이 났다면 목사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김동호는 말한다.¹⁶⁹⁾ 목적이 세속주의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세속화 되고, 또 얼마든지 교회들 다니다가 불교로 개종할 수 있다.

제자훈련은 성공주의와 물량주의적 교회 부흥, 즉 대형교회들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개최하는 CAL세미나에는 언제나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다. 2006년 5월 20일 현재 국내 11,451명, 미주 1,285명, 대만 118명, 일본 521명, 총 13,375명이 수료들 했고, 여전히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목회자들이 줄을 잇고

167) 류개광, "개신교, 성장둔화와 성도 이탈 심각," *크리스천투데이*, 2005년 6월 6일자, 21.

168) 최진환, "우리나라 종교신자가 8,200만명?," *한국일보*, 2004년 10월 5일자, 25.

169) 박성수 외, *나는 정직한자의 행동을 믿는다*, 117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⁷⁰⁾ 본인도 CAL세미나를 수료했고, 제자훈련을 목회의 중요한 본질로 여기고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과연 사랑의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라 해도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줄을 서겠는가? 하는 것이다. 다분히 목회들 물량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의도에서 그토록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면 진정한 부흥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의 목적이 그런 교회의 양적 부흥에 있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50년대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한 조나스 솔크가 누군가가 그에게 치료법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것을 권하였을 때 “햇빛을 특허 낼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요”라고 대답했듯이,¹⁷¹⁾ 제자훈련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느 한 개인이나 교회가 특허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훈련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제자훈련의 목적이 잘못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목회자의 사람을 만들어서 말 잘 듣게 만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 제자훈련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철저한 주님의 제자들 만드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원하심대로, 예수의 교회들 세워가게 하는 것이다.

2. 방식에 대한 오해

방식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제자훈련을 시작했으나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자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보제공 방식이다. 제자훈련을 GBS(Group Bible Study)로 오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지만 성경과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만 전달 할 뿐이다.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성경에 대한 많은 정보성 지식을 키울 뿐이고, 교회들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대한 정보들 얻을 뿐이다.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해져 가지만 주를 위해 살고 죽을 참된 예수의 제자는 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교회 성도들에게 정보들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다.

둘째는 율법주의 방식이다. 이것은 제자훈련을 교회에 적합한 한 사람을 만들어

170) 양승언, *CAL세미나 수료자의 제자훈련 실시 현황과 과제*, Disciple, 2006년 6월호, 25.
171) Elisabeth Kubler-Ross and David Kessler, *인생 수업 (Life Lessons)*, 듀시파 역 (서울: 이레, 2006), 248.

내는 것 정도로 오해하는데서 나온 방식이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적합한 한 틀을 만들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을 그 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라”는 것을 하게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한 사람이 옛날에 하던 어떤 행위들 하지 않게 되고, 옛날에 하지 않던 어떤 신앙행위들 하게 되면 제자훈련을 잘 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시행할 경우에는 첫째의 경우보다는 더 나은사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별 차이가 없게 된다. 당장은 변화된 것 같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판 바리새인화 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근본변화 방식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들 전달하는 것도 아니며, 어떤 틀에 맞는 사람을 양산해 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옛 성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식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틀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거듭난 그가 언제 어디에 내어 놓아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제자가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무장 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복시키고, 집중하게 하며, 이해시키고, 숙고하게 함으로서 충분히 그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단순히 예수 없는 성경의 지식적인 정보들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교이지 제자훈련이 아니다. 제자훈련이 학교화 되면 실패하게 된다. 또한 제자훈련은 한 사람을 단순히 현재 교회에 잘 맞는 틀에 맞추는 작업도 아니다. 현재 교회가 정한 어떤 틀에 잘 맞아도 성경의 진리에서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에서는 얼마든지 탈선해 있을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교만해 졌고, 심각한 율법주의라는 새로운 신앙에 빠졌던 것이다. 예수께 심각한 질타와 책망을 들었던 것이다. 제자훈련은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의 성품

을 삶은 사람, 살아도 예수들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들 위해서 죽을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 자체를 근본부터 바꾸고, 바뀐 그 사람이 오직 예수만 바라고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받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순교의 각오로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삶은 사람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제공 방식이나, 율법주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오직 근본변화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비록 근본변화 방식은 훨씬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다. 좁고 협착하고 외로운 길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제자훈련인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언제나 참 제자와 거짓 제자들 가려 내셨다. 죽정이를 날려 보내고 알곡만 남기셨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이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으셨다.¹⁷²⁾ 그것은 기대했던 일이며, 비록 상심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바라던 일이기도 한 것이다. 교회 건물 주위들 맴돌고, 또는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것을 믿고, 바른 대답을 하고 교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을 좇는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은 아니다. 근본변화 방식은 보다 강력한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 역시 크다 하겠다. 진정한 알곡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할 수 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사용되는 제품이 창고에 가득 쌓인 제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¹⁷³⁾

3. 부정적 견해로 인한 오해

제자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한 오해 때문에 제자훈련을 실패하게 되는

172) Bruce. 열 두 제자 훈련. 165.

173) Simson. 가정교회. 348.

경우도 있다.¹⁷⁴⁾

첫째는 현대판 바리새인을 만든다는 것이다. 영성은 부족하고 형식만 남는 신자들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머리만 커지고 손발은 없는 신자들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말만 많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신자들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편협한 경건주의와 분리주의자들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훈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전통적 교회들 깨뜨린다는 것이다. 기존 교회의 전통과 제도를 무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받고 나면 오히려 기존 교회의 전통과 제도를 거부하는 신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가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들 사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성경적인 교회들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목사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평신도가 배워 놓으면 목회자의 말이나 행동과 권위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평신도가 직접 평신도들 가르치게 되면 목회자의 권위가 약화 된다는 것이다. 평신도들 깨워 놓으면 오히려 목회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다. 물론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에게는 가룟인 유다가 있어서 예수를 배신했고, 바울에게는 데마가 있어서 바울을 배신했다. 그러나 배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성스런 주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들은 오히려 목사의 권위를 세워준다.

넷째는 목회자가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목사 개인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임목사에게 맹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담임목사들 맹종하게 만들면 실패한다. 실제로 평신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¹⁷⁵⁾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 목회자 자신과 함께 동역할 사람을 만들면 오히려 제자훈련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특정한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당한 학력수준과 환경이

174) 최상태,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교회 사역이 가지는 목회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18-20.

175)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68.

갖추어진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숙제 등은 학력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조금 어렵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이 되어 있고, 학력의 수준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이 가능하고, 교회도 개척 교회와 같이 너무 작은 교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 역시 당시에 학력으로 그다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당시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교회 역시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다. 실제로 훈련은 해 보면 크게 특정한 여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여섯째는 너무 힘이 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온 힘을 기울여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한 사람을 세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사역에서도 그랬다.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을 부인하고 제자들의 무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제자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았고, 빌립은 항상 계산적이었으며,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다.¹⁷⁶⁾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점차 진정한 주의 제자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는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들이 되었다.

상기의 여러 가지 오해들은 이미 밝혔던 방식에 대한 오해들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들이다. 방식에 대한 오해가 해결이 된다면 이러한 오해들은 상당부분 해결이 될 것이다.

제 5 절 교회 개척전략으로서 제자훈련의 적용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제자훈련이 교회 개척 전략으로서 매우 탁월한 것임이 사실임에도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해서 의심되고, 거부되는 현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제자훈련이라는 이 탁월한 전략을 어떻게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적용을 살펴볼

176)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49.

차별이다.

1. 형태적 적용

교회 개척에 있어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교회들 개척하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함께 개척할 개척 멤버가 전혀 없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기본적인 사람들이 함께 개척하는 경우이다.

첫째는 개척 멤버가 함께 개척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먼저 함께 개척에 참여하는 멤버들을 작은 목자로 훈련 무장 시켜야 한다. 온누리 교회들 개척한 하용조 목사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용조목사는 교회 설립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무장시켰고, 그들이 훈련된 후에 비로소 교회 설립예배를 드리고 조직된 교회들 출발시킨 것이다.¹⁷⁷⁾

둘째는 목사 홀로 교회들 개척하는 경우이다. 본인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럴 경우 먼저 목사 자신이 철저히 훈련 무장 되어있어야 한다. 먼저 자신의 신앙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소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제 전도들 하여 전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양육의 열매가 있는지가 확인된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저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와 양육 열매가 실제로 있다는 다른 것이다. 훈련 세미나들 수료 했다와 실제로 훈련의 열매가 있다 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양육 프로그램을 익혔다거나, 훈련 세미나들 수료한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인 것이다. 열매가 분명히 확인된 양육 훈련 능력을 가지고 개척을 한 후에는 먼저 전도들 하여 교인을 확보해야 한다. 전도는 사영리, 글 없는 책, 다리 예화, 또는 전도 폭발 등의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가지고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들 통해서 전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되어 들어오는 신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는 새 가족

177) 변재창, *작은 목자훈련*, 147.

반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알게 하고, 다음은 교리 공부들 통해서 진리의 기초를 갖게 하고, 다음에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숙된 신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처음 개척해서 조급함은 절대 금물이다. 때문에 개척할 때 몇 개년 계획을 몇에 나누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3차 7개년 계획 같은 것이다. 제1차 7개년 계획은 교회의 기본 멤버 만들기, 제2차 7개년 계획은 교회 부흥하기, 제3차 7개년 계획은 역동적으로 사역하기 등이다.

2. 선택의 적용

소수 선택의 원리를 따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이미 언급했듯이 조급함은 절대 금물이다. 조급하여 많은 수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예수께서도 소수 정예화들 추구하셨다. 온전히 훈련되고 무장되어 주를 위해 살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100사람 보다 훨씬 더 큰일을 해 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신중히 검토하고 그가 틀림없는 사람인지들 확인해야 한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별개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어도 틀린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 선택에서 실패하면 그 후의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12사도들 선택하시기 전날 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이다. 꼭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은가? 첫째는 목표에 대한 같은 마음이다. 동상이몽을 가지고서는 함께 동행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암 3:3)고 말씀하신다. 방법의 차이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목표의 차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성숙이 있어야 한다. 물론 성숙의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성숙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숙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숙이 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셋째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책임은 그들 세워주든지 망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책임을 주어보면 알 수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넷째는 충성이다. 성경은 “충성된 자들 누가 만날 수 있으랴?”(잠 20:6)고 말한다. 제자훈련을 하고자 하

는 목회자는 충성된 사람을 인내로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충성은 성실과 순종의 합일체이다.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이다.

3. 훈련의 적용

강철 같은 훈련. 훈련은 강철 같이 시켜야 한다. 조금하여 단기간에 제자훈련을 끝내려 하거나, 성도들의 사정을 다 봐주면서 훈련의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본인이 힘들다하여 훈련을 대강하게 되면 그 제자훈련은 실패하게 된다.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정도의 강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강철 같은 훈련을 시켜야 한다. 훈련을 강철 같이 강하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유의점이 있다. 첫째는 순종훈련이 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진정한 주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순종'이다. 순종이 없다면 그는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다고 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 열심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이다. 진정한 제자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훈련되는가? 그것은 강력한 제자훈련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목숨을 거는 강력한 훈련과 요구를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신의 게으름과 정욕을 버리면서 순종하게 되면서 철저한 순종이 훈련되는 것이다. 둘째 유의점은 진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진정 주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진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옥석이 구별되는 것이다. 주께서 주신 진정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힘들게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결국 반대하고 훈련을 포기하거나, 교회들 떠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대단히 유의한 것이다. 이 강철 같은 훈련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나 쉽게, 그리고 단 시간에 하려는 지름길을 만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전 과정을 그르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¹⁷⁸⁾

178)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142.

4. 종식의 적용

교회는 종식해야 한다. 부흥해야 한다. 어느 정도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는 제 1세대 평신도 지도자들의 정기적인 훈련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몰보는 신자들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제 2세대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가 배울 될 수 있도록 해야 지속적으로 다음세대가 준비되면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다. 사도바울도 디모데에게 “또 네가 많은 종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 한 것이다. 앞으로의 목회의 성패는 또 다른 강력한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준비되고 양성되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5. 초점의 적용

장애물이 아니라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원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지상명령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은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한 것이다. 쉼 없이 다가오는 장애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무도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분명히 초점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즉 목표에 맞추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우리의 사명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역설하였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에게도 이것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10명은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었고, 2명은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었던 10명은 실패하게 되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늘이 항상 맑은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반짝이는 별 만큼이나 폭풍우도 잦은 법이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주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문계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4 장 한길교회의 현황

한길교회가 위치한 인천 서구 석남동, 신현동 지역은 인천에서도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다. 여러 면에서 어렵게 사는 가정들이 많다. 이 지역에서 개척한 한길교회는 금년에 10주년을 맞는다. 현재의 한길교회의 현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도 있지만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제 1 절 설립

교회 설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실감한다. 10년 전에 이 지역에 교회들 개척하게 되었을 때는 그저 하나님의 응답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빈틈없으신 돌보심이었다.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들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 설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1. 설립배경

교회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교회들 개척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히 정해진 생각은 없었다. 단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교회 개척으로 소명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1997년 5월 10일 교회들 설립하게 되었다. 지역적인 연구와 선택도 특별하게 있지 않았다. 금전적인 특별한 준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강력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한 부담을 떨쳐 버릴 수 없어서 개척할 지역을 찾았다. 특별히 어떤 지역을 결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적당한 곳을 찾아 다녀 보았다. 그러다 당시 재정 형편에 맞는 지역과 건물을 찾아 현재의 이곳에 교회들 설립 개척하게 된 것이다.

당시 수중에는 2000만원 밖에 없었기에 그 형편에 맞는 건물이 있는 곳이 하나

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도저히 그 형편에는 갈 수가 없었고 비교적 낙후된 이 지역에 형편에 맞는 적당한 상가들 임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미 세 번이나 다른 교회가 개척했다가 문을 닫고 나간 자리였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지역의 어려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저 개척을 할 수 있음이 감사했고, 감격이 되었다. 허름하고 낡은 상가 내부들 손수 뜯어내고, 칸을 막고, 페인트를 칠하고, 창에 글자를 써 붙이면서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 의자가 들어오고, 강대상을 얻어 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2. 간단한 연혁

교회 연혁은 대략 다음과 같다. 1996년 5월 15일 인천 서구 석남1동 523-1에 있는 상가 건물 3층 약 40평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하여 '양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라는 설립 비전하에 교회 설립을 준비하였고, 1996년 6월 2일 본인과 가족들이 첫 예배를 드렸다. 매일 거의 온 종일을 발바닥이 부르토도록 전도를 하였다. 새벽기도회는 사모 한 사람을 얹혀 놓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하루도 빠짐이 없이 새벽기도회를 했다. 정성을 다하여 설교 준비를 했고, 힘을 다하여 설교하였다. 전도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1996년 10월 첫 새가족 성경공부반이 시작되었다. 1997년 4월에는 첫 학습예식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설립예배를 1997년 5월 10일에 드리고, 제1기 제자훈련이 1997년 5월 18일 드디어 시작되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01년 제1기 제자훈련이 수료했고, 2004년에는 제2기가, 그리고 2006년에는 제3기 제자훈련반이 수료들 하였으며, 현재는 제4기와 제5기가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 1997년 11월 30일 예배당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480-15, 50평으로 이전하였고, 2004년에는 서구 신현동 152-46, 156평으로 이전하였으며, 2007년 4월 현재 서구 신현동 146-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약230평 정도의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다.

제 2 절 지역적 상황

한길교회가 위치한 지역적인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지리적 상황

한길 교회는 지리적으로 인천의 가장 서부에 있다. 서쪽 끝 바다에 인접한 목재 단지에 접해 있다. 원목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목재단지가 조성이 되어있고, 목재 단지를 중심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 공업단지 뒤로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주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사회적 상황

공업단지들 끼고서 자리를 잡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의 일이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사는 형태가 많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들어와 살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들이 동네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생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인생 비관성의 술 취함이 만연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여관이 함께 빼곡히 들어차게 된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한방주의가 만연되어 노름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서 노름으로 인해 가정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곳이었다.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2-3년 사이에 이사하는 유동인구가 특별히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인천의 대표적인 우범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하다. 10년간 이 지역의 변화들 위해 기도해 왔다. 최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고 있다.

3. 경제적 상황

대부분이 단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편에서는 유흥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그 유흥업을 통해서 소비하면서 더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곳이기도 했다. 지역의 경제는 주로 유흥업을 통해서 유통되는 곳이기도 했다.

4. 교육적 상황

먼저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학력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학력은 대체로 중졸과 고졸이 대부분이다. 전혀 무학도 있어서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도 그다지 높지 않다.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형편의 가정들이 많다 보니 이러한 상황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단순히 생활고 때문만은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거의 방치된 상태에서 자라나고 있기도 하다. 가정들이 부부 갈등과 이혼 등으로 인해서 편모나 편부 슬하의 자녀들이 적지 않고, 어떤 경우는 조부나 조모의 슬하에서 양육되는 아이들도 있다.

5. 종교적 상황

지역적으로 바닷가이고 교육적으로 저학력이고, 생활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인지, 지역적으로 점치는 집이 유난히 많다. 몇 집 걸러 무당집과 점치는 집의 깃발이 보일 정도로 미신과 무당집, 점치는 집이 많다. 또한 이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단들을 포함한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도 많이 있어 미신과 영적 혼란이 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교회들 나와도 여전히 미신적인 신앙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다.

제 3 절 한길교회 목회비전

교회들 개척하면서 가졌던 비전은 10년을 지나오면서 조금씩 구체화 되고 정교화 되었다. 처음에는 아홉 가지로 구체화 되었다가 지금은 여섯 가지로 좀 더 구체화 되어 있다.

1. 감격의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시내산 총회’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¹⁷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셨다.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지,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점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세속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교회에서도 황금만능주의와 가족주의가 팽배하게 되어가고 있다. 교회는 물질만능주의와 가족주의에 간혀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들 맞고 있다고 박영신이 지적한 대로 교회는 여러 통계에서 심각한 위기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¹⁸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들을 개척하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 인정되는 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설교를 듣거나 성경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교회들을 세우고자 했다. 그들은 너무도 쉽게 말한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겠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도 알겠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다. 이것은 교회의 심각한 위기의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예배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더욱 예배의 중요성이 있다. 예배가 살면, 신앙이, 즉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삶이 살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의 예배가 살면 많은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많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된 것이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는 찾기 힘들다는 말이나, 신자는 많은데 신자다운 신자들 찾기는 어렵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또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는 부교역자들 찾으면서 신학생들은 많은데 전도사다운 전도사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도 듣는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

179) 이종윤, “성경에 나타난 교회 형태,” 옥한흠, *바람직한 교회형태*, 14.

180) 윤정국, “위기의 개신교,” *동아일보*, 2006년 6월 15일자, 21

회의 힘을 ‘숫자’로 평가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역자나 평신도들이 서로 만날 때면 먼저 묻는 것이 ‘교세’이고, 그 ‘교세’의 뜻은 교인 ‘숫자’를 뜻하는 것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숫자’로 교역자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도들의 우열을 평가한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몇 사람이 모이느냐 보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단순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 교회다운 교회, 회복된 교회들 세우고자 했다. 단순히 성장만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들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격의 예배가 빠진 교회라면 정상적인 교회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2. 믿음의 명문가

이 시대들 책임질 믿음의 명문가 120가문을 세우는 교회이다. 본인이 풀러 신학교의 ‘건전한 기독교 가정’이란 과목의 보고서에 적었던 내용 일부들 인용하고자 한다.

설교들 잘하면 좋은 교회가 세워질 줄 알고 열심히 설교들 배우고, 세심하게 설교들 준비하여 설교하였다.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에 전념해 보았다. 그러면서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 가정이 세워지기 전에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 아무리 열심히 봉사들 하고 헌신을 해도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교회에 와서 기쁨을 얻어도 가정에 돌아가 그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신앙의 미성숙의 악순환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은 멋진 결혼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자랑스러운 믿음의 명문가(名門家)들 세우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담답고 건강한 가정과 멋진 믿음의 명문가들 만들고 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방황하고, 마지막에는 포기한 채 자포자기 하고 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과 신앙(信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들 주며 사는 것이다. 교회에 나올 때는 교묘(巧妙)히 상처들 가리고 나와 있으나,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서로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서로들 공격하고 더 큰 상처들 주고, 급기야는 몰이킬 수 없는 파국

(破局)의 지경까지 가게 되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불행한 현실(現實)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교회는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져야 한다. 건강한 가정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도 될 수 있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에서도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役事)해 오셨음을 보게 되었다.¹⁸¹⁾

이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교회는 깨어지고 망가지는 가정들을 그저 바라보면서 그저 후속 대책에만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건강한 가정 없이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건강한 교회 없이는 건강한 사회와 나라, 민족이 있을 수 없다.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신도들 철저히 성경으로 양육하여 세워야 하고, 그들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건강한 신자의 가정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옥한흠의 말대로 교회 안에서 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이다. 세상에 드러나는 가견적인 교회는 성직자라고 이름 하는 소수의 교회가 아니라, 생활 현장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평신도의 교회이다.¹⁸²⁾ 평신도는 교회의 중요한 주체이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무능력한 모습으로 잠들어있거나 쓰러져 있다. 그 평신도들을 깨워내고, 훈련시키고 무장시켜 세우면, 그들이 신앙의 명문가들 세우게 되고, 강건하고 강력한 교회들 세우고, 사명을 완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내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말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명 받은 교역자와 소명 받은 평신도는 그 역할 면에서 다들 뿐이고 사역의 경중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세대들 책임질 믿음의 명문가들 세워내야 한다. 특히 이 소외된 지역에서 신앙의 명문가들이 나와서 이 세대와 사회들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소명이라 생각한다.

3. 선교명령

선교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한스 쾨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본디 그 기원에서부

181) 이광호, "교회와 가정 사역," *건전한 기독교 가정*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4.

182)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37.

터 세계적이었다. 교회들 지탱하고 교회가 설교하는 메시지는 세계들 향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¹⁸³⁾ 세계들 품는 세계선교의 명령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교회가 이 명령을 외면한다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외면하는 것일 것이다.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명령인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하는 명령이며, 죽더라도 완수해야 하는 명령인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다. 선교하는 현장에 주님의 관심이 집중된다.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 선교하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하게 된다.

첫째는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에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강한 교회들 세우는 것이다.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비전은 120개의 교회들 개척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둘째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120명의 선교사들 파송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120명의 선교사들 파송하고 협력하려고 한다.

4. 다음세대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들 양육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들 제대로 양육하여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암흑의 시대로 일궈어지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십 세에 죽으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산 북 덩넛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다시

183) Hans Kung, *교회란 무엇인가?*, 199.

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와 그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삿 2:8-15).

성경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강력히 명령하고 있고,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다음세대의 준비가 없는 것은 곧 다음세대의 교회가 없음을 말함이다. 현재 아무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기세가 강력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의 소망은 없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적 거인들을 양육하여 배출해 내야 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사명인 것이다. 깊은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겸비한 영적 거인들을 교회는 배출해 내야 한다. 깊은 영성은 있는데 탁월한 전문성이 없거나, 탁월한 전문성은 갖추었는데 깊은 영성이 없는 반쪽짜리 신앙인이어서는 부족하다.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 받는 사람이나, 반대로 세상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데 신앙은 전혀 없어서 세속적으로 자신의 출세나 성공만 지향하는 사람으로도 다음 세대의 교회의 소망은 없는 것이다. 다음 세대의 교회와 세상의 각계각층과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주인공들은 깊은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겸비한 영적 거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양육해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교회의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사명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20명의 다음세대들 책임질 영적 거인을 길러내는 비전을 갖는다.

5. 예배당과 교육관, 그리고 선교관

교회 비전에 맞는 예배당과 교육관, 그리고 선교관 건축.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용과 함께 그릇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당이 필요하고, 이 시대들 책임질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하며, 다음 세대들 책임질 영적 거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교육관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 센터가 될 선교관이 필요한 것이다. 설립 10주년을 맞는 2007년에 연건평 약 230평 규모의 예배당과 교육관 선교관을 준비하였다.

6. 교회 비전 선언문

상기의 목회 비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문화한 비전 선언문이 있다. 이 비전 선언문은 매 주일 오후에 모이는 교회 리더들이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읽고, 수시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다시 확인한다. 새 가족들이 거치는 과정인 새 가족반 성경공부의 마지막 과에서도 이 비전을 밝히고 함께 공유한다.

우리의 사명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1000명의 예배자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사명은 이 세대들 책임질 믿음의 명문가 120가문을 세워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사명은 국내 복음화를 위해서 120개 교회들 개척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의 사명은 세계 미전도 지역에 120명의 선교사들 파송하며 협력하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사명은 깊은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들 책임질 120명의 지도자들 길러내는 것이다. 여섯째, 우리의 사명은 이 지역에 교회 비전에 맞는 아름답고 소박한 예배당과 교육관, 선교관 등을 지어서 우리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다.

제 4 절 한길교회 목회철학

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에 의해서 움직인다. 목회 철학에 의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회의 방향과 활동의 내용이 결정된다. 목회 철학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결정한다.

1. 교회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들 위하여 처소들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들 위하여 처소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궁금증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려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으면 당신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데려가시면 더 좋을 것을, 왜 당시에는 혼자 승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가”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바로 우리들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더 이상 죄를 범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생할 필요도 없이 좋을 텐데, 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그대로 두시다가 나중에야 데려가시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교회론의 중요한 내용이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교회가 단순히 천국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교회는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다.

사실 구원론과 종말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빨리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다. 이 두 가지, 즉 구원과 종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며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후 이 땅을 떠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우리의 일인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게으르면 그만큼 적게 남기게 되고, 부지런히 감당하면 많이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것에 대한 계산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교회론의 주요 내용은 이 구원에서 종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정의인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보냄 받은 자들의 모임” 역시 이것을 정의해 놓은 것이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성도들과 함께 이 사명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목회인 것이다.

2. 교회론의 위기

오늘날 구원받은 교회는 있는데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는 찾기가 쉽지 않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사모하는 신자들은 많이 있는데 순교의 각오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들을 찾기는 마치 천연기념물을 찾듯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나, 천국을 사모하지만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금방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고, 때문에 황신적으로 교회에만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되든지, 아니면 그 때까지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 세속적인 신앙인들이 되든지 하는 양극단의 불행한 상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서 가정과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황신자가 되든지, 세속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까지도 그다지 기다리지 않게 된 명목상의 주일 신자들이 되든지, 이러한 현상은 분명 교회론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론의 위기는 곧 목회의 위기이기도 함과 동시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교회란

교회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서 있지만, 세상을 대면하고도 서 있어야 한다. 구원을 얻고 천국을 바라면서 존재하지만 세상의 구원을 바라면서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하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의 사명이 있고, 세상을 향해 흩어질 때의 사명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나들 부르실 때까지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모이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이다.

4.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세 가지와 세상을 향해 흠어질 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모이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 4장 23-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5-6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불러내신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 어떤 목적도 이것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사명은 가장 우선에 있다 하겠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들 부르셨음을 밝히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 하셨고, 같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 하시면서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들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들 닮아가야 함을 강력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고, 그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사명인 것이다. 셋째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4절의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는 말씀처럼 교회가 모일 때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같은 주 안에서의 하나 됨이며, 그것을 위한 교제이다. 사단이 교회들

공격할 때 항상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교회들 분열시키는 것이다. 교회의 분열은 교회로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교회의 역량을 와해시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는 모일 때 하나 뭉을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질 때의 사명, 즉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이사야 43장 7절의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는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자신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흩어짐이 아니라면 교회의 세상을 향한 흩어짐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의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질 때는 이웃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흩어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전도의 문을 닫히게 하는 일이 되므로 이웃 사랑이 없는 교회의 흩어짐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이다. 아직 생명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존재하는 사람들,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두움에 갇혀 사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으로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3-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 하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침묵하고 있을 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소망을 상실한 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 역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질 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힘을 다해서 전파하다가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제 5 절 한길교회 목회 전략

목회 철학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 한길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유지해 온 목회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제자도

제자도가 빠진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다. 우리들 향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의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인 따르기를 거부했으므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또 다른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다.¹⁸⁴⁾ 네비게이트 선교회를 시작한 도슨 트로트맨(Dawson Trotman)이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을 읽다가 빛을 본 이래 지금까지 제자화 운동은 뜻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가슴에 큰 각성을 일으켜 왔다.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교회의 사도적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도를 그 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다.¹⁸⁵⁾ 성경에 ‘제자도’라는 말은 없다. ‘제자’의 정의도 없다. 대신에 ‘제자’라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과 사역의 내용은 많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제자도’를 배울 수 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전략이었다. 제자도는 사도들과 초기 교회의 기본 전략이었다. 교회들 세우는 기본 전략이었고, 성도들을 세우는 기본 전략이었다.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예 군사로 만드는 기본 전략이었다. 이 제자도는 주님의 방법이였다. 어느 사도 개인이나, 어느 한 교회가 만들어 낸 방법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사도들은 이 방법을 그대로 배웠고, 순종해서 초대 교회들 세운 것이다. 제자도는 참된 교회들 만들었고, 참된 성도들 만들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평신도의 중요성에 먼저 눈을 뜬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내세운 전략은 참여와 세속화였는데, 전략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원리들 따르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⁸⁶⁾ 예수님의 제자도 원리는 평신도들 세상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었다.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제자도에는 하

184) Sime,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 21.

185)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91.

186) Ibid.

나눔이 즐거워하시며 찾으시는 사람을 만드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다.¹⁸⁷⁾

2. 제자훈련

제자도라는 전략으로 제자들 만드는 전술을 ‘제자훈련’이라고 한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도들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다. 제자도들 실제화 하는 방법으로서 제자훈련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제자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제 6 절 개척 3차 7개년 계획

개척을 하면서 목회 비전도 있고, 전략도 있었지만 실제로 교회들 개척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었고, 큰 것이었다. 전략을 좀 더 구체화 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것을 3차 7개년 계획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1. 계획의 동기

처음 개척을 할 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첫 해들 지내면서 뼈저린 경험을 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는 모두 장년 출석이 1500여명이 되는 중대형 교회였다.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사역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사역을 계획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척을 하고나서는 자원의 한계가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자원이 없으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는 원대한 비전도 있고, 좋은 사역 계획도 매일 떠오르고, 기록해 보지만, 정작 실행을 할 수는 없었다. 인적인 자원도 물적인 자원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개척을 하면 잘 될 줄 알았다. 원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고, 좋은 사역 계획들도 있으니 잘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막연한 생각은 실제로 개척한 사역의 현장에서는 아주 멀게만 보이는 것이 되어 버렸다.

¹⁸⁷⁾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92.

그렇다고 인적인 자원을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올 수도 없었고, 빌려올 수도 없었다. 물적인 자원 역시 다른 교회에 손을 벌려 빌려오기도, 후원을 요청하기도 마음에 허락되지 않았다. 또한 마냥 그 자원이 채워질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주님의 뜻은 아니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2. 3차 7개년 계획

사역의 기간을 20년으로 계산했다. 1, 2, 3차에 걸쳐 7년씩을 계획하였다. 첫 7년은 교회의 기초 닦기, 두 번째 7년은 그 기초를 가지고 부흥하기, 세 번째 7년은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로 3차 7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래서 첫 7년은 교회의 기초를 이룰 인적 자원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우는 기간으로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7년 동안 다른 아무것에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만 전념하였다. 지금은 두 번째 7년의 기간을 지나고 있다.

3. 계획의 유의함

이 계획의 유의함은 실로 큰 것이었다. 그저 막연하게 교회가 때가 되면 자립을 하겠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흥을 하겠지 하는 경우에는 쉽게 탈진하게 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목회자로 하여금 결국 조급하게 만들거나 탈진하게 만드는 것을 적지 않게 보았다. 그러나 이 3차 7개년 계획을 가지고 목회들 하면서는 그 위험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었다.

제 7 절 현재 한길교회 교육과 사역

현재 한길교회에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 사역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러한 교육과 사역들은 더욱 활성화 되면서 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1. 주일학교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들 책임질 깊은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 120명을 길러낸다'이다. 그래서 유치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신앙, 유초등부는 '예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구속신앙, 중고

등부는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고백이다.'라는 고백신앙, 청년부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역사신앙을 교육 목표로 양육하고 있다. 현재 주일학교의 규모는 제적이 유초등부는 120여명, 중고등부는 50여명, 청년부는 20여명 정도가 양육을 받고 있다.

2. 새 가족반

새 가족반은 장년을 대상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경공부 과정이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초신자이든 기존 신자이든 상관없이 이 과정을 밟아야 교회에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면 막연히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어도 일 년 이상 빨리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집은 1년에 4번 매 분기 마다 한 번씩 모집하고, 시간은 매 주일 오후 점심 식사 후에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한다. 다른 교역자나, 평신도도 리더가 인도해 보기도 했었다. 그러다보니 새로 등록을 한 성도에 대해서 담임목사가 자세히 알지 못하게 되어서 여전히 서먹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담임목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가 교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면서 다시 담임목사가 직접 하게 된 것이다.

내용은 총 아홉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 만남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만남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 만남에서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덟 번째 만남에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아홉 번째 만남에서는 "한길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비전은 무엇입니까?"라는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만남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한다.

3. 주간성경공부

주간 성경공부는 평일에 청장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성경공부 과정이다. 또한 이 과정은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자훈련 전제 과정이기도 하다. 내용은 교리연구반 1년 과정과 책별성경연구반 1년 과정이 있다. 이 두 과정을 둔 이유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평신도 역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최

소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성경 전체를 교리라는 방식으로 한 번 공부하고, 책별이라는 방식으로 한 번 공부하여 최소한 두 번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성경을 통한 신앙의 기본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2년을 공부하고 나면 제자훈련에 들어와서도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제자훈련을 받아내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현재 책별성경연구반은 화요일 저녁에, 그리고 교리연구반은 토요일 저녁에 모이고 있다.

4.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본 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역이다. 모집 시기는 매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가 끝나면 다음 한 기를 모집한다. 현재는 3기까지 수료했었으며 4기, 5기의 3개 반이 훈련을 받고 있다. 제자훈련에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은 첫째, 본 교회 출석 성도로서, 가정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 둘째, 새 가족반을 수료한 성도. 셋째, 교리연구반을 수료한 성도. 넷째, 가정교회 가장의 추천을 받은 성도. 다섯째, 만 50세 이하인 성도. 여섯째, 주를 위한 분명한 헌신의 증거가 있는 성도.

제자훈련 과정은 예비과정, 기초과정, 성장과정, 제자과정, 사역자과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각 교재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과정: 새 가족반, 교리연구반. 둘째, 양육과정: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셋째, 제자과정: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넷째, 사역자과정: 리더십 훈련이다.

기간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훈련되고 무장되어 세워지는 양상과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숙제는 매일 QT, 매일 성경읽기 10장 이상, 매일 기도하기 새벽기도 참석해서 30분 이상, 매일 전화하기 2통화 이상, 설교 요약하기 주일 오전예배, 저녁예배, 수요 저녁예배, 매월 필독서 읽고 매주 독후감 써내기, 태신자 전도하기 전반기 한 명, 후반기 한 명, 마지막으로 생활숙제 등이다.

방학이 있는데 여름에만 한 달 정도 있다. 여름에는 각 기관 여름 행사들이 있기도 해서 방학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학은 나름대로 유의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5. 사경회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사경회를 한다. 기존 부흥회 대신에 사경회로 하는데 봄에

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을, 가을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을 선택하여 성경을 한 주간동안 강해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00-6:00까지 한 시간, 오전 10:00-12:30까지 두 시간 반, 저녁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는데 저녁 시간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 쉬는 시간에 저녁을 같이 먹는다. 직장을 퇴근하고 바로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모두 함께 식사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성도들의 반응이 좋고 사경회들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신앙 성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사경회 역시 제자훈련을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6. 수련회

매년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장년 여름 신앙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시행한다. 시골의 작은 교회나, 기도원, 혹은 콘도에서 시행하는데 상당한 효과들 거두고 있다. 신앙 수련회이기 때문에 아래의 표1의 일정표와 같이 상당히 강한 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수련회들 통해서 매년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련회들 통해서 제자훈련을 받아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이미 세워진 리더들이 식사 준비부터 아이들을 돌보는 일, 청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봉사들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온전히 수련회에만 전념할 수 있다. 동시에 리더들의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에 대한 존경과 인정, 그리고 많은 섬김에 대한 실제적인 배움을 얻기도 한다. 수련회의 기회들 통해서 리더들을 다시 평가하게 되고, 리더들은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보람과 기쁨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수련회들 통해서 헌신의 훈련도 상당부분 되기도 한다. 모두들 쉬고 싶고, 가족과 함께 즐기고 싶은 여름휴가 3박 4일 기간을 수련회에 내 놓는 것이 그리 쉬운 결단은 아니다. 심각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련회의 모든 경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교회는 전혀 수련회들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본인의 신앙의 수련과 성숙을 위해서 교회가 수련회들 준비한 것인 만큼 본인이 그 경비들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매년 수련회 참가 회비는 가족당 25만원 내지는 30만원 정도가 된다. 이것 역시 적지 않은 만큼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에 신청하여 참석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것들이 헌신훈련이 되고 있다.

수련회는 거의 1년 농사라고 자평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 매김하

고 있다. 일 년 52주 설교를 통한 변화와 결실 못지않게 3박 4일간의 변화와 결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 해는 리더 여름 수련회로, 한 해는 장년 여름수련회로 시행하고 있다.

7. 전도와 선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는 준엄한 명령이 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중차대한 사명이기에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순행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본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다음과 같이 실행되고 있다.

주일 전도팀: 매 주일 점심식사 후에 모여서 노방 축호전도들 하고 있다. 자원하는 남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두 시간 정도 나가서 전도들 하고 있다.

수요 전도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노방 축호 전도들 하고 있다. 주로 자매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전도들 하고 함께 점심 식사들 한다.

태신자 전도: 1년에 두 번 태신자 전도들 한다. 1월부터 6월까지 한 번, 7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두 차례 태신자들 작성하고 6개월간 접근하고 전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사역을 하고 있다. 1월과 7월에 작성하고 6월 마지막 주와 12월 25일 성탄절에 태신자들 초청하여 전도집회들 갖는다.

선교사 후원: 공산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세 가정을 후원하고 있다.

기관선교: 네 개의 기관을 후원하고 있다.

미자립교회: 6개의 미자립 교회들 후원하고 있다.

8. 가정교회

제자훈련과 소그룹은 교회의 두 날개와 같다. 예수께서도 제자훈련과 함께 동시에 소그룹을 운영하셨음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소그룹 형태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구역모임의 형태에서부터 최근의 셀이나 목장의 형태까지 다양하다. 본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가운데 가정교회의 형식을 취하였다. 가정교회라는 이름이 보다 더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그룹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여러 면에서 가정교회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사 학자들은 이와 같은 가정교회가 15-20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그보다 커지

게 되면 근처에 또 다른 가정교회들 시작함으로써 자기 배가들 했다고 보고 있다.¹⁸⁸⁾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런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 한 개였던 가정교회가 현재는 7개의 가정교회로 운영되고 있다. 가정교회는 무조건 교회가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원하여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되어 나오고 있으면서도 가정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가정교회는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 모임과는 다른, 삶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가정 같은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밤에 모이는데, 먼저 저녁식사나 간식을 먹고 나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삶을 나누면서 나온 기도제목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친다.

9. 사역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 안에 ‘교회발전위원회’가 있고, 교회발전위원회 안에 다양한 사역팀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새가족팀: 새가족관리, 집회안내, 새가족반성경공부. 둘째, 주방팀: 주방관리 및 봉사. 셋째, 시설팀: 교회 모든 시설관리. 넷째, 전도팀: 전도, 수요전도, 주일전도, 전도대회. 다섯째, 구제팀: 구제. 여섯째, 기도팀: 중보기도팀, 담임목사와 예배 위한 기도팀. 일곱째, 홍보팀: 게시판, 현수막, 광고, 전도지 개발. 여덟째, 건축팀: 예배당 건축 준비. 아홉째, 미화팀: 예배당 환경 미화, 꽃꽂이. 열째, 재정팀: 재정 관리. 열한째, 예배팀: 예배준비, 주보제작. 열두째, 선교팀: 국내외 선교지 관리 및 문서선교. 열셋째, 차량팀: 교회 차량 관리. 열넷째, 사무행정팀: 사무행정, 재정 관리 등이다.

성도들은 자원하여 사역팀에 들어가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사역팀에는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188) Simson. *가정교회*, 94.

제 5 장

제자훈련을 통한 한길교회 개척

한길교회는 제자훈련을 전략으로 교회들 개척하였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었고, 세워져 왔는지 살펴보겠다. 준비와 과정, 그리고 내용과 교재, 현황 등을 살펴보자.

제 1 절 선택 이유

제자훈련을 교회 개척 전략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이다. 교회들 개척하는 목사에게 교회 개척 전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이시고, 총사령관이신 예수께서 이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개척하고자 소명하신 당신의 종들에게 전략을 명령해 놓으신 것이다. 때문에 이 제자훈련 전략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해야 하고, 설령 성과가 좋지 않아도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제 2 절 준비

제자훈련을 개척 전략으로 준비하고자 할 때 목회자 준비, 전도, 훈련생 확보가 그 주요 준비에 해당 된다.

1. 목회자 준비

제자훈련은 교회들 개척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면, 그 준비에 있어서 목회자의 준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결국 제자들 삼는 것은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 진다. 제자는 제자가 만든다. 그러므로 목회자 본인이 제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 만들어 낸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교재나 자료가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한 사람을 주님께 헌신된 제자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기술이나 방법이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 만들어 내지 못한다.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 충성되고 헌신된 주님의 제자는 역시 충성되고 헌신된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 낼 수 있다. 목회자가 먼저 철저한 주님의 제자로 서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전에 먼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목회자가 먼저 강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된 제자로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먼저 목회자가 철저한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다.

교회들 개최하기 전에 가능한 철저히 자기 훈련과 성숙을 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개 교회 개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개최자금이냐, 혹은 개최 멤버나 개최 자리, 또는 여러 개최에 관한 자료들 준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다. 개최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준비는 목회자 자신의 제자 됨이다. 목회자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 확인을 통한 헌신의 준비와 훈련을 통한 성숙의 준비, 그리고 사명을 통한 충성의 준비가 먼저 선결되어야 교회개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철저히 본인 준비를 하였다.

2. 전도

제자들 삼기 위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보면, 그 안에 제자들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보조 명령들이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마 28:19)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의 내용이다. 제자들 삼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들 믿게 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나 붙들고 제자들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먼저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들 위해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이 전도명령이다. 때문에 교회들 개최하여 주

님이 원하시는 교회들 세우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전도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이 닫는 온 지경에 가야 한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교회들 개최하는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역인 것이다.

본 교회들 개최하고 필자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축호 전도와 긴 거리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들 매일 했다. 때로는 거부들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했다. 때로는 발가락이 터져 흥건히 피에 적셔지기도 했다. 전도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전도들 다녀도 금방 사람들이 몰려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매일 전도들 나갔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도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이 교회 개최의 전략이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전략이며 명령이기도 하다. 주님이 주신 제자훈련 전략 속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제자훈련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을 훈련 시켜서 주님의 정예군사 같은 제자들 만들라는 것이다.

3. 훈련생 선발

전도들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다.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꼭 전도들 받고 나오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일 전도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제자훈련을 받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대부분이 오히려 제자훈련을 받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은 제자훈련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또 선뜻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교회에 출석 성도들이 생기도 늘어간다 해도 제자훈련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제자훈련을 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에 적합한 훈련생을 확보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본인이 자원하게 해야 한다. 목회자가 잘 보아서 자원하도록 돕기도 하고, 선택을 하기도 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했다.(디모데후서2:2)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 제자가 되기도 어렵고, 훈련 과정에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 더디더라도 반드시 충성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분명해야 하고, 배우고 습득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찬타필라(P. T. Chandapilla)가 지적하듯이 이미 주어진 기회들 이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바로 가까이에 주어져 있는 일할 기회로부터 무언가 이루어 낼 줄 알고, 더 많이 일하며 봉사할 기회들 기꺼이 찾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계시의 진리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게으르고 허송세월하며 백일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나, 계시의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제자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¹⁸⁹⁾ 때문에 출석 성도들 가운데 먼저 총성된 사람이 누구인지들 잘 살펴보면서 훈련에 적합한 사람들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다.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교회의 정확한 목적을 이야기 해 주고, 그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확보한 후에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후에 교회들 함께 세워나가는 귀하고 총성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조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과정 없이 선택을 했을 경우 거의 그 제자훈련은 실패들 하게 되는 것이다.

제 3 절 과정

제자훈련은 편의상 예비과정, 양육반 과정, 제자반 과정, 사역자반 과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과정들이 있다.

1. 예비과정

예비 과정은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다. 성도 입장에서는 제자훈련에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들 세우거나 확인하면서 제자훈련의 맛을 조금 보게 하는 과정이다. 신앙의 기초가 전혀 없이 제자훈련에 들어 올 경우에는 제자훈련 과정 속에서 신앙의 기초들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 뿐 아니라, 훈련시키는 사람도 힘이 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함께 훈련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루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비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또한 훈련을 시키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 성도들 제자훈련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얼마나 성실하고 총성스러운지, 신앙의 정도는 어느만큼 갖추고 있는지,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은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을 이 예비 과정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¹⁸⁹⁾ Chandapilla. *예수님의 제자훈련*, 27.

이 과정에는 새 가족반 9주 과정과 교리연구반 1년 과정이 있다. 제자훈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있다.

2. 양육과정

실제적인 제자훈련의 첫 과정이다. 제자훈련의 초급 과정으로 이 과정의 목표는 “자신의 신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에다 떨어져 놓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넘어지거나 침체에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자들 만드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면서 신앙의 충성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만드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들 따라가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중점은 로드십(Lordship)이다.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훈련한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주(Lord) 되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고, 나는 주의 소유되었음을, 때문에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함(롬 14:7-8)을 확인한다.

이 과정은 1년 반 내지는 2년 정도 소요된다. 교재는 주상윤이 만들고, IVP에서 출판된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교재들 사용한다. 교재의 내용은 제1과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 제2과 쫓대들 향해 달리는 삶, 제3과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 제4과 올바르게 기도하는 삶, 제5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제6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제7과 덕을 세우는 삶, 제8과 형제들 바로 잡는 삶, 제9과 복음을 전파하는 삶, 제10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 등 총 10과로 되어 있는데 신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유의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 된다.

3. 제자과정

이 과정은 양육반 과정을 마친 후 1년 반 내지는 2년 정도 소요된다. 교재는 필자가 교회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들 사용하고 있다. 양육반 과정의 교재는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가운데 적절한 것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제자반 과정부터는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 적절한 교재들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가 교재들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는데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자반 과정의 교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복

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등 세 권으로 되어있는데 그 각 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1과 교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2과 가정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3과 직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4과 시험 당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5과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제1과 네가 어디 있느냐?, 제2과 더 가까이, 제3과 새 출발, 제4과 무지들 깨고 등으로 되어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제1과 담대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2과 함께 동역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3과 힘써 수고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4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5과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6과 떠날 기약이 될 때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제자반 과정은 총 15과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사역자과정

이 과정은 1년 정도 소요된다. 이 과정의 주 내용은 구체적인 리더십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리더십의 본질과 내용, 그리고 실제,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과 내용, 실제, 교회론의 진단과 내용, 그리고 현실 진단과 나아갈 방향, 제자도, 제자훈련, 리더론, 양육론, 성경공부와 인도법, 소그룹과 인도법, 시간 관리법 등으로 구성되어 실제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리더로서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 4 절 제자훈련의 내용

제자 훈련 속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내용은 훈련생들이 매우 힘에 버거울 정도로 설정한 것이다. 너무 힘이 들어 감당할 수 없으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반면 너무 쉬우면 훈련이 되지 않아 강력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1. 성경

제자훈련은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에 나와 있듯이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주요한 책은 성경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배의 설교와 주간 성경공부, 그리고 GBS 성경 읽기, 암송, 묵상 등을 하게 한다. 예배의 설교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므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청종하게 하고, 주간 성경공부는 제자훈련에 들어오기 전의 필수 과정으로 밝게 하고 있으며, 제자훈련 기간 중에는 GBS를 제외한 성경 읽기와 암송, 매일 묵상 등은 숙제로 하여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게 한다. GBS는 이미 언급한 교재들 가지고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정도 말씀을 가지고 귀납적으로 생각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배워 나간다.

제자훈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위치는 가장 중심에 있으며, 가장 소중한 것이 분명한 것이다. 성경은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도 한 사람을 다듬고 훈련하고 만들어 간다. 디모데 후서 3장 16-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정말 성경 자체가 성도 한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때로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또 히브리서 4장 12-13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들 상 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는 말씀처럼 목사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감추려하는 사람들도 말씀 앞에서는 찢러지고 쪼개져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제자훈련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목사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권능이 드러날 때 비로소 제자훈련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임을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2. 숙제

제자훈련에서 숙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훈련이 아직 되어있지 않은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고, 쉽게 게을러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숙제는 이러한 문제들 다소 해결하는데 매우 유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숙제들 통해서 한 주간을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숙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하게 한다. 우선,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게 한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매일 한 단락씩 묵상하여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찾고, 그것을 그 날의 삶에 적용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들 다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점검하면서 순종하고 실행 했으면 감사들, 만일 순종하지 못했으면 반성을 하게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와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매일 성경 10장 읽기를 하게 한다.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과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들까지도 성경을 1독도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회들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그토록 오래 동안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놀랍게도 성경을 1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거나, 지엽적이거나 편협적으로 성경을 오해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거나,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살 수 있고, 성경대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10독을 하게하고, 그 후로는 최소 매 해마다 1년에 1독 이상을 하게하고 있다. 셋째, 매일 성구 암송을 하게 한다. 매주마다 암송성구 한 구절을 숙제로 내 준다. 그리고 제자훈련 시간에 숙제들 검사할 때는 이미 지나간 주의 것 세 개들 더하여 네 개의 성구들 암송하게 한다. 매주 새로운 한 개의 성구들 암송하는 것이지만, 한 개의 성구들 한 달간 암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순종하여 결국 신앙의 승리들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외우게 되는 암송구절은 초급과정 60구절, 중급과정 60구절, 사역자 과정 132구절, 총 192구절을 암송하게 된다. 넷째, 매일 새벽기도회에 나와 기도 30분 이상을 하게 한다. 말씀이 장작이라면, 기도는 불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건조해지기 쉽고, 경직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냉

랭하게 식어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매일 기도들 30분 이상 하게 한다.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이론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실제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하면서 얻게 되는 거룩한 훈련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저 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기도들 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기도 없이 신실하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될 수도 없으며, 기도 없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영적 거인들이 하나 같이 기도의 용사들이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굳이 새벽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새벽 말고는 정기적이고 깊은 기도들 할 시간과 장소들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평생 사역자로 세워져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편 57편 8절과 10편 2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말하면서 새벽을 깨웠던 것은 그의 절실한 필요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왜 새벽기도도 없던 당시에 새벽을 깨워야 했을까? 그것은 그의 절실함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영적 거인들이 새벽을 깨웠고, 사역을 감당할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 역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능히 사단의 꾀계들 이기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 어려운 체질이나 습관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주님의 성공적인 제자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습관과 체질까지도 바꾸라고 권한다. 다른 일을 위해서도 습관을 바꾸고, 힘을 들여 체질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다섯째, 매일 전화 두 통화 이상을 하게 한다. 대상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이 훈련의 목적은 섬김의 훈련이다. 결국은 훈련 후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전혀 아무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고 사는 독불장군식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훈련과 교제의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누구하고든지 두 통화 이상의 전화들 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오픈하고 교제들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회(敎會)가 교(敎)는 있는데 회(會)가 없어지고 있다. 가르침의 교(敎)는 있는데, 하나 되고 일체된 회(會)는 없어지고 있다. 같은 예배 자리에서 같은 예배들 드리지만 옆 자리에 앉은 다른 성도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서로 간에 “서로 깊은 사정을 물어보지 않기”같은 묵계(黙契)가 형성되어 있다. 서로의 사정을 물어보면 싫어하고, 그저 겉으로만 형식적인 인사들 나눌 뿐이다. 이미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교회의 정체들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안부들 묻고, 서로들 위해 기도해 주며, 서로의 필요들 도와주는 것은 현실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교회의 사명인 것

이다. 여섯째, 태신자 걱정하고 전도하게 한다. 1년에 두 차례(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태신자들 걱정하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들이 모두 전도에 대한 명령이었다. 제자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제자훈련이라면 그 제자훈련은 실패한 것이다. 제자훈련은 자기 자신만 신자로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태신자들 걱정하게 하고 6개월간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은 고인 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악취만 풍기게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천국 문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¹⁹⁰⁾ 일곱째, 설교 요약하게 한다. 주일 오전 예배와 저녁예배, 수요 저녁예배의 설교들 요약해서 제출하게 한다. 설교들 그저 듣는 것과 요약을 해 보는 것은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시키는데 큰 차이가 있다. 제자훈련에서 설교는 너무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설교는 성장하게 하고, 훈련은 성숙하게 한다. 성도는 예배로 살고, 예배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김남준의 말대로 설교 견디기가 요즘 성도들에게 많아지고 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지만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 주보에 밑줄 긋고 뒤늦은 교정을 보는 사람들, 그저 졸거나 자는 사람들, 수시로 시계들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재는 사람들, 옆 사람과 글로 대화들 나누는 사람들, 예배 후에 있을 약속을 체크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으며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¹⁹¹⁾ 등 설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배와 설교가 죽으면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죽는다. 설교가 없으면 제자훈련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배와 설교에 집중하게 하고, 설교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소화하여 본인의 것으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설교들 요약하게 하는 것이다. 여덟째, 매달 필독서를 읽게 한다. 한 달에 한 권씩 필독서를 정하여 읽고 독후감을 써내게 한다. 제자훈련은 결국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다. 독서는 리더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배우기를 중단하는 순간 리더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독서의 습관은 리더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습관인 것이다. 책을 싫어하면서 리더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를 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 시간에 다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배우고 관련된 지식을 얻게 함으로서 제자훈련의 효과들 극대화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담임목사에게 배우고 훈련 받는 내용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것들과

190) 배창돈, "제자훈련 인도자와 훈련생은 전도의 열정을 지녀야 한다." *Disciple*, 2006년 10월호, 13.

191) 김남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서울: 규장, 1997), 49.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영적 거인들의 삶과 가르침과는 어떻게 같은지들 알게 함으로 제자훈련에 관해서 신뢰와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갖게 하는데 매우 유의한 것이다. 또 독서들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됨으로서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게 되는 효과도 있다.

3. 수련회

제자훈련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수련회이다. 주로 국경일과 공휴일에 1일 수련회나 1박 2일 수련회로 진행이 되고, 2년에 한 번 정도 여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3박 4일간 수련회들 진행한다. 이 수련회들 통해서 평소 하지 못했던 집중 훈련을 하게 되고, 특별한 이슈들 다루게 되기도 한다.

4. 사역현장

제자훈련 과정 중에 1년이 지나면 그 이듬해부터는 사역을 시작하게 한다. 주일 학교 교사들 하게하고, 가정교회 부가장(부총무)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며, 사역팀에서 팀장을 도와서 사역을 구체적으로 돕게 한다. 먼저 제자훈련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배들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배우고, 직접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사역의 현장이 없이 그저 훈련만 받게 될 경우에는 머리만 커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사역의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훈련을 받게 될 경우에는 훈련받고 배우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배우는 내용이 단순한 지식이 되지 않게 되고, 사역의 현장에서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다가도 어느 날 그 문제들 배우게 됨으로서 문제들 해결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며, 먼저 사역을 하고 있는 선배들의 애로사항이나, 목회자의 어려움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제 5 절 교재

제자훈련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대략 다음 세 가지들 말할 수 있겠다.

1. GBS교재

목회자와 제자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마주 선다는 것은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대면하여 서지 않고서 제자훈련을 시킨다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목회자 한 개인의 제자들 만들거나, 교회의 제자들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대면하여 서는 성경공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 때 꼭 필요한 것이 교재이다. 교재 가운데 좋은 교재가 있고, 그리 좋지 못한 교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교재가 비성경적인 교재가 아닌 한, 교재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재를 듣고 서는 목회자이다. 교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느 특정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나, 어느 특정 목사가 사용하는 교재가 가장 좋은 교재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목회자에게 가장 맞는 교재,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재가 가장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목회자마다 그 성향과 배경과 문화와 수준이 다르고, 그 교회의 위치와 상황,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는 자신과 자신의 교회에 적합한 교재를 선별해서 제자훈련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현장

현장 역시 중요한 교재 중에 하나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현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훈련 되게 된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들 받았다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목회의 현장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담임목사가 되어 실제로 현장을 경험하면서 목회들 더 깊이 배우게 되고, 더 성숙되고 큰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책으로 된 성경공부 교재 못지않게 현장도 중요한 교재가 되는 것이다. 주일학교, 가정교회, 사역팀, 그리고 가정과 직장 등은 훈련을 위한 현장 교재로서 대단히 중요한 교재인 것이다.

3. 지도자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목회자와 이미 훈련을 마치고 사역하는 평신도 지도자 역시 중요한 교재이다. 실제로 제자훈련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먼저 앞서가는 목회자가 어떻게 사는가? 가르친 대로 살고 헌신하며 충성하는가? 먼저 제자훈련을 받은 선배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며,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 등을 보면서 배우고, 도전을 받고, 위로들 받으며, 훈련이 되고, 무장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성경공부 교재가 좋아도 이 마지막 교재가 좋지 못하면 그 제자훈련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제자훈련을 시키는 목회자와 먼저 훈련되어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은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재인 것이다.

제 6 절 제자훈련 현황

현재까지 제자훈련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수료생

지금까지 수료생은 총 10명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결실이 미미한 것 같고, 결과가 매우 더디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10명이 현재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중심 멤버들 형성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사역을 상당부분 분담하고 있다. 자신들의 맡은 사역을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다. 이제 “달려온 10년, 날아오르는 20년”을 표어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 장로들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같은 비전을 소유하고,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지면 교회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욱 힘 있게 날아오를 것이다.

2. 훈련생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은 총 14명이다. 이들은 중급과정과 고급과정을 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수료한 10명과 함께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선배들을 보고 배우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고, 위대한 교회들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다. 많은 변화들 보이면서 장래에 대한 기대들 크게 하고 있다.

3. 준비생

현재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2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새 가족반과 교리연구반을 수료하고 제자훈련 모집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제자훈련에 대한 기대는 교회의 여러 사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자원하는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제 6 장

제자훈련 전략이 개척과 성장에 미친 영향

교회 개척 이후 지금까지 제자훈련이 개척과 성장에 미친 영향은 실로 큰 것이었다.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여 보이지도 않았고, 너무 작아서 이것이 과연 장차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제자훈련은 그런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훈련은 역시 교회 개척 전략으로 적중한 것이다.

제 1 절 목회 비전에 미친 영향

먼저 담임목사의 목회 비전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컸다. 막연해지기 쉬운 비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 감격의 예배

먼저 감격의 예배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는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갱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예배 갱신이라는 이름하에 예배의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예배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는 탈신학적이고 실용주의적 시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벽에 부딪힌 목회적 한계들 극복해 보려는 시도라고 보아야 한다고 김남준은 역설한다.¹⁹²⁾ 그러나 형식과 방법의 변화만으로는 진정한 예배갱신은 불가능한 것이다. 예배자가 변화되지 않는 한 감격의 예배는 가능할 수 없는 것이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신자

192) 김남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5.

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예식이다. 때문에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가 가능할 수 없다. 몇 가지 시설과 예배의 형식, 방법의 변화들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제자훈련은 참된 예배자들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는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발견한 참된 예배자들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을 알게 되어,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제자훈련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하는 행위가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양산해 내는 프로그램도 아니다. 그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뒤바꾸는 사역인 것이다. 창조주 앞에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서게 하는 것이며, 그 앞에서 참회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을 받아들여 그 계획에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는 사역인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배출된다. 별 시설의 바꿈이 없이도, 예배의 형식을 바꾸지 않아도,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제자훈련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예배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음을 설문조사들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질문은 총 10개였고, 현재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총 24명 가운데 23명이 응답하였다. 그 가운데 연령별로는 20대가 2명, 30대가 11명, 40대가 10명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12명이었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번 질문 '제자훈련과 예배생활과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는 23명 모두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대답했고, 2번 질문 '제자훈련을 하기 전 예배생활과 제자훈련 후 예배생활이 차이가 있는가?'에는 22명이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고 대답하고, 1명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대답해서 제자훈련과 예배 생활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번 질문 '제자훈련 후 예배생활이 제자훈련 전의 예배생활보다 더 나아졌는가?'에는 20명이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대답했고, 2명이 '조금 나아졌다.'고 대답했으며, 1명이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4번 질문 '제자훈련이 예배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에는 20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고, 3명이 '조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여 23명 모두가 제자훈련이 예배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5번 질문 '제자훈련의 성경공부가 예배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20명이 대답했으며, 3명이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대답해서 23

명 모두가 제자훈련의 성경공부가 예배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6번 질문 ‘제자훈련의 숙제가 예배생활에 미친 영향을 어떤가?’와 7번 질문 ‘제자훈련의 생활숙제가 예배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서는 20명이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대답했고, 3명이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대답하여 역시 제자훈련의 숙제가 예배 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8번 질문 ‘제자훈련의 삶을 나눔이 예배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에서는 20명이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고, 3명이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대답하여 역시 23명 모두가 좋은 영향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9번 질문 ‘제자훈련의 양육자의 예배생활이 당신의 예배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서는 22명이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1명이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대답하여 제자훈련 속에서 양육자의 예배 생활을 보고 배우며 각자의 예배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 10번 질문 ‘성공적 예배 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훈련을 추천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2명이 ‘적극 추천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였고, 1명이 ‘조금 추천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여 절대적으로 성공적인 예배 생활을 위하여 제자훈련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고, 제자훈련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배출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예배 태도에 의해서 교회 전체의 예배 분위기를 주도됨으로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된다는 것이다.

참된 예배자의 유무가 목회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 참된 예배자들 만드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자훈련이 가장 확실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2. 평신도 세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¹⁹³⁾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신구약 성경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말해도 그렇게 사는 신자들 찾기는 쉽지 않다. 몰라서 그렇게 못살고,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지지 않아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회자는 말하고 말하다가 지쳐 포기하게 되고, 성도들은 살아보려고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살아지지 않을 때 포기하게 된다.

마땅히 성도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

19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2003), 21.

분의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목회자들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그저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성경은 에스겔 42장 20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광이 오백 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등에서 분명히 교회와 세상의 성숙의 구별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세상의 성숙의 구별은 사라지고, 교회 역시 세속화된 모습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는 쉽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질림과 분노가 쉽게 일어나게 되고, 설교에 대한 도전과 목회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목회자 역시 그들에게 자신의 설교와 목회 철학을 맞추든지, 아니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의 갈등이 되고, 목회의 고민과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실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살게 된다. 아무리 배우고 깨닫고 다짐하고 결심을 한다 해도 실제로 살아지는 것은 지금까지 몸에 익숙해 있는 습관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관을 바꾸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내용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기 때까지 가르치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자훈련은 성도로 하여금 신구약 성경이 삶의 유일의 법칙임을 밝힐 뿐 아니라, 그렇게 살기까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의 기존의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제자훈련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 말씀을 지키는 습관이 될 때까지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제자훈련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 세속화된 세상에 들어가 사는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평신도가 세워지지 않고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목회 역시 언제나 힘들고 벅차며, 목회자는 지치게 될 것이다. 교회들 개척하고, 교회들 세워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평신도는 소중한 사역자이며 동역자이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제자훈련은 결과적으로 평신도들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로 세워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실제로 본 교회의 경우에서도 제자훈련을 받고 변화된 사역자들이 교회의 다양한 부분의 일들을 맡아서 교회들 세워가고 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더 힘 있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 목회자는 차츰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재정이나 부동산이 아니다. 훈련되어 변화되고 주께 헌신된 일군들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곧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것이다. 교회의 가장 귀중한 보배들인 것이다.

이러한 평신도의 세워짐 현상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에는 제자훈련을 수료했거나 현재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23명이 응답했는데, 연령대별로는 20대 2명, 30대 7명, 40대 12명, 50대 2명이었고, 성별은 남자 12명, 여자 11명이었다.

먼저 제1문 ‘제자훈련과 당신의 삶과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는 23명 모두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제2문 ‘제자훈련 후의 당신의 삶이 제자훈련 전의 삶보다 더 나아졌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도 23명 모두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대답했고, 제3문 ‘제자훈련이 당신의 전반적인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 역시 23명 모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제자훈련이 평신도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제4문 ‘제자훈련이 당신을 올바른 신자로 세우는데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3명 모두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제5문 ‘제자훈련과 당신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23명 모두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대답했고, 제6문 ‘제자훈련 후의 당신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제자훈련 전보다 더 나아졌는가?’는 질문에 대해서 역시 23명 모두가 ‘훨씬 더 나아졌다’고 대답하여 제자훈련이 삶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7문 ‘제자훈련이 ‘성경이 당신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23명 전원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제8문 ‘제자훈련이 ‘성경을 당신의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살게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3명 전원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하였고, 제9문 ‘제자훈련의 양육자의 삶이 당신의 삶과 성경 이해에 미친 영향

은 어떤가?’는 질문에 대해서 23명 모두가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하여 제자훈련이 성경을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이해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살게까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제 10문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성경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 역시 23명 전원이 ‘항상 성경으로 살고 싶다’고 응답하여 높은 의지를 보여 주었고, 제11문 ‘성경을 유일한 삶의 법칙으로 하여 사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훈련을 추천할 마음이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도 23명 모두가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제자훈련에 대한 호감과 알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 세워나가는 데 가장 중심에 서서, 가장 큰 헌신으로 충성하는 동역자로 세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전체 건축현금의 68퍼센트가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의 헌금이었음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제자훈련이 평신도 한 사람을 올바른 신자로 세우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신도 한 사람을 헌신자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가정 세움

레이몬드 에드먼(V. Raymond Edman)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풍기 문란의 시대라고 설교하였다.¹⁹⁴⁾ 작금에 이르러 이혼율이 급증하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부부간에 열정과 친밀감, 그리고 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영성에 근거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의 관계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¹⁹⁵⁾

목회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급변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건강한 교회들 세우려면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한다. 바울이 개척한 대부분의 교회들도 한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¹⁹⁶⁾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훈련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 방면에서 많은 변화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올바른 결혼, 건강한 가정을 얻게

194) Edman. *인생훈련*. 1.

195) 유재성. “원가족 작업’을 통한 젊은 부부의 가정 위기관리.” *목회와 신학*, 2006년 11월호. 85

196) Wagner. *개척하라*. 103.

된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가정을 바로 알게 되고, 남편이 바로 세워지고 아내가 신실하게 서게 되면서 부부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결혼 생활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신앙은 결코 한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신앙은 전 삶의 문제이고, 그의 세계관의 문제인 것이다. 인생 전반에 걸친 골격인 것이다. 그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제자훈련은 그의 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을 바꾸는 역사이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면서 그의 전 생활영역이 변화될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부의 결혼생활도 있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이다.¹⁹⁷⁾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성 윤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건설한 결혼생활에 대한 대안과 모범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결혼생활이 가능한지를 실제적 모델들을 통해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망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회복의 길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회복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이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고 회복하는 것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남녀노소가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악한 성적 범죄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죄는 없다. 아무리 무너지고 있는 성 윤리의 시대라고 해도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세울 때 건설한 결혼과 성 윤리들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건강한 가정이다.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앙에 의해서 가정생활이 건전하고 부부 관계가 건강하고, 사랑 안에서 아름다울 때, 성문제에 대한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성경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 건강한 결혼생활을 세울 수 있고, 무너지는 성 윤리들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들 죄에서 떠나게 하든지, 죄가 우리들 성경에서 떠나게 한다. 교회가 성경의 계명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지키면서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따르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제자훈련인 것이다.

다음은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한길교회에서 제자훈련과 결혼생활에 대한 설문

197) Charles Colson and Nancy Pearcey.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How Now Shall We Live?)*. 정영만 역 (서울: 요단, 2003). 37.

조사의 결과이다. 제자훈련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질문은 총 10개였고, 현재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총 24명 가운데 23명이 응답하였다. 그 가운데 연령별로는 30대가 13명, 40대가 10명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12명이었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번 질문인 ‘제자훈련과 결혼생활과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11명 전원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자는 11명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응답했고, 1명이 조금 관계가 있다고 응답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녀 모두 23명 가운데 23명 모두가 깊거나 조금이라도 제자훈련과 결혼생활이 관계가 있다는 근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다. 2번, 질문인 ‘제자훈련을 하기 전 결혼생활과 제자훈련 후 결혼생활이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남자 11명, 여자 11명이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고, 여자 1명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여 역시 제자훈련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번 질문인 ‘제자훈련 후 결혼생활이 제자훈련 전의 생활보다 더 나아졌는가?’에 대해서는 남자 11명 전원과 여자 10명이 훨씬 나아졌다고 응답했고, 1명이 조금 나아졌다고 응답했고, 1명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에서도 전체 23명 중에서 22명이 더 나아졌다고 응답하여 제자훈련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4번 질문인 ‘제자훈련이 결혼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남자 11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고, 여자는 11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응답을 했고, 1명은 조금 역할을 한다는데 표하여 23명 모두가 제자훈련이 결혼생활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5번 질문인 ‘제자훈련의 성경공부가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에 대한 응답은 남자 11명이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여자는 11명이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고, 1명이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여기에서도 23명 모두가 제자훈련이 결혼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6, 7번 질문 ‘제자훈련의 일반 숙제와 생활 숙제가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남자 11명이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고, 여자 9명이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고, 3명이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여기에서 일반 숙제란 QT, 성경읽기, 기도하기, 성구암송하기, 필독서 읽기, 설교요약하기 등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숙제로 인하여 시간이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어서 부부생활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8번 질문 ‘제자훈련의 삶을 나

늬이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남자 11명이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고, 여자 10명이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2명이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제자훈련 시간에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고민과 삶을 들으면서 자신과 같은 고민을 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사한 부분을 보게 되어 용기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며, 소망을 얻게 되어 결국 결혼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9번 질문 ‘제자훈련의 양육자의 결혼생활이 당신의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남자 10명이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고, 1명이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여자는 10명이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고, 2명이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사실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목사 자신이다. 제자훈련을 받는 성도들은 결국 양육자인 목사 부부와 가정을 보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23명 중에 20명이 목사의 결혼생활을 보면서 매우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3명이 조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함으로써 23명이 결국 제자훈련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얻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응답을 보면서 3명에게 보다 더 좋은 영향을 보여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기회도 되어서 본인에게도 좋았다.

10번 질문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훈련을 추천할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남자 10명이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1명이 조금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여자는 11명이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1명이 조금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23명 중에 21명이 적극 제자훈련을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2명이 조금 추천하고 싶다고 하여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제자훈련의 결혼생활에 대한 깊은 영향을 보게 된다. 실제로 본 교회에서는 다음 기에 제자훈련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본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건강한 가정들로, 행복한 결혼생활로 더 세워지고 있다.

4. 다음 세대 준비

다음세대들 준비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다. 다음세대들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장세대들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들이 중요함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부모와 교사가 제대로 성숙

되어 있지 않거나, 세워져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세대인 성장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한 일이다. 때문에 교회가 다음세대들 준비하는 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들 먼저 훈련하고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인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부모와 교사들이 훈련되고 무장되어 세워짐으로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양육 받고, 신앙을 전수 받는 성장세대가 다음 세대들 이끌어갈 동량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들이 다음세대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훈련하는 일들을 무척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는 본인들이 훈련과 성숙이 되어있지 않음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부담, 실제적인 버거움이 경험되기 때문이다.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훈련되고 무장되고 나면 버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양육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면서 다음세대들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감사 중에 하나이다.

제 2 절 교회 자립과 성장에 미친 영향

교회 자립은 교회들 개척하는 모든 목사들에게 가장 큰 관심일 것이다. 제자훈련 전략은 교회 자립과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 양적 성장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이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먼저 양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해도 양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급성장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해도 성장이 멈추어 본 적도 없다. 매년 꾸준히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다.

2. 인적 자립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인적으로 자립되고 있다. 이제는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인적이 자원이 부족해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교회 규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적자원이라고 여겨진다. 재정 자원도 때로

는 주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인적 자원인 것이다. 재정 자원이야 다른 곳에서 빌려 올수도 있지만, 인적 자원은 다른 곳에서 빌려 올 수도 없기 때문이다. 목회들 도와서 교회들 함께 동역하며 세워 나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확보된다면 목회는 훨씬 쉬워지는 것이다. 그만큼 덜 외롭고, 덜 힘들고, 오히려 더 재미있고 힘 있게 교회들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고, 그들이 목회의 힘이 되는 동역자들이 된다. 개척 초기에 목회자 혼자 짊어졌던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지기 시작하게 된다.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자신들이 자원하고, 또 스스로 알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교회들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모습은 목회의 큰 기쁨이며, 자랑이고, 또한 힘이 되는 것이다.

3. 공동체적 성장

제자훈련을 통해서 꿈을 주는 교회, 꿈을 이루는 공동체들 이루어 가고 있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분열되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적 성장을 지향하게 된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절실하게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서로들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어려움을 때 돕고, 4-5년을 동고동락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의 끈끈한 사랑과 그 안에 소속된 소속감, 그리고 개인과 가정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감하게 된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의 성장도 불가능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게 된다. 제자훈련이 없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적 성장의 중요함을 제자훈련을 통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고, 함께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4. 지역사회에 대한 성장

지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전도에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씀을 보게 된다. 무료 급식 등의 구제들 하고, 다양한 봉사들 한다. 교회의 이미지들 좋게 하려는 방법을 계속 개발하기도 한다.

지역 사회가 교회들 보면서 가장 놀라는 것은 구제와 봉사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이다.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고 교회에 대한 재평가들 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듯이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 신비한 변화들 지켜 보면서 복음에 대한 평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제자훈련은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들 시킨다. 알콜 중독자가 변화되고, 노름꾼이 변화되며, 좌절과 절망으로 방황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이 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점차 새롭게 인식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다.

5. 재정 자립

교회 재정의 자립이 빨리 이루어 졌다. 개척 당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의 월세로 시작 되었다. 제세공과금과, 개척 이듬해부터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들 초빙하였기에 교육전도가 사례비와 담임목사 사례비 등 매월 제법 적지 않은 지출이 있었으나, 설립 3주년을 맞으면서 재정이 자립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 해도 적자가 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설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시작한 예배당 건축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진행 되었다.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축으로 인해 교회들 떠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아울러 건축에 필요한 총 비용의 68퍼센트를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했음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하겠다. 교회들 개척하게 되는 경우에 재정 자립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때 재정의 자립은 이 후의 목회 사역에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헌금은 절대 부자라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헌금은 헌신이며 충성의 표현이다. 헌금은 신앙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돈의 많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목회들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된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훈련되고 변화되고 성숙된 성도들은 헌금 생활에서도 탁월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들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들 위해서 죽고자하는 헌신의 욕구가 불타게 되고, 그 헌신은 바로 헌금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 헌금 설교들 거의 하지 않아도

현금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헌신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게 되겠는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함이 아쉬울 뿐이다.

제 3 절 교육과 사역에 미친 영향

교회 교육과 사역에도 제자훈련 전략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 주일학교

주일학교들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사 확보라고 한다. 제자훈련이 주일학교에 미친 영향은 우선 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사 자원이 확보가 되어있다. 또한 주일학교에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사의 사직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확보된 교사들의 중도 사직율은 거의 없다. 한 번 교사로 임명을 받으면 중도에 사직하는 경우가 10년 동안 단 한 건 밖에 없었음이 이들 입증해 주고 있다.

교사가 중도에 사직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힘들고 버거워서라고 한다. 그러나 제자훈련의 훈련을 통해서 교사로 임명이 된 경우에는 힘들고 버거워서 중도에 사직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2. 장년 성경공부

현재 새가족반, 주간 성경공부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 교회 전체의 성경공부의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 자연스럽게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다. 또한 한번 수료들 한 사람들도 다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수강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지고 있다.

3. 제자훈련

제자훈련에서 다음 기의 훈련생을 모집하는 일이 쉽다. 이미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 리더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그들의 역동적인 헌신과 충성의 모습 등이 차기 제자훈련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고, 어렵지 않게 차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다. 오히려 다음 제자훈련을 기다리고 있다.

4. 전도와 선교

매주 주일 노방전도와 수요일 노방, 축호전도에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하여 전도하고 있다. 또한 제자훈련의 숙제 중에 하나인 태신자들 작성하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도가 되어 지고 있다.

5. 소그룹

현재 가정교회라는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소그룹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라 할 것이다. 소그룹이 수준은 리더의 수준이고, 소그룹의 상태는 리더의 상태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이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로 세워지지 않는다. 교회의 이 교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소그룹의 중요성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소그룹이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공동체인 교회에서 중요한 가치는 소속감이다. 교회 안에 있는 그룹에는 1:1그룹, 소그룹, 대그룹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회들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그룹은 역시 소그룹인 것이다. 1:1그룹은 너무 편협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진정한 소속감을 갖게 되기가 쉽지 않다. 그저 또래 집단의 소속감 정도 밖에는 소유할 수 없다. 반면에 주일에 모이는 전체 모임인 대그룹을 통해서도 진정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가 쉽지 않음이 사실이다. 매 주일에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제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러나 소그룹은 1:1그룹보다는 폭넓은 교제를 할 수 있고, 대그룹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성도간의 교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때 함께 동역이 가능해 지고, 함께 동역이 가능해 질 때 교회에 주신 각종 사명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세우는 중심에 소그룹 리더가 자리하고 있다. 훈련되고 무장되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자리가 이 소그룹의 리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넉넉히 그 리더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리더는 결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없다면 성숙된 소그룹 리더는 세워질 수 없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현재의 가정교회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아주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6. 사역팀

교회 안에 소그룹 외에 다양한 사역들이 필요하다. 교회가 감당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각 사역의 영역에서 사역자들이 세워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사역은 교회들 더욱 활발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한다.

사역팀에서도 예외 없이 사역팀을 효과적이고 신앙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가 필요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이 사역팀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교회 안에 10개의 사역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교회에 각 분야들 개발하고, 교회 비전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목회의 든든한 동역자들이다.

제 4 절 목회자에게 미친 영향

제자훈련은 목회자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본인이 지나온 10년을 돌아볼 때 만약 제자훈련이 없었다면 너무도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1. 심리적인 면

제자훈련이 교회들 개최한 목회자 본인의 심리적인 면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교회들 개최한 목회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심리적인 불안이 될 것이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조급함은 쉽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가게하기 때문이다.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목회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목회가 더 어려워지면 더 절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급기야는 결국 교회들 포기하기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기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개최 전략으로 세우고,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목회자의 심리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첫째는 초조하거나 조급해지지 않는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들 삼는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을 하고자 할 때 이미 장기전(長期戰)임을 각오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제자들 삼는 일이다. 한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제자훈련을 개최전략으로 가진 목회자는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는다.

둘째는 숫자에 매이지 않게 된다. 제자들 삼는 것은 결코 다수들 동시에 삼을 수 없다. 제자 삼는 사역은 언제나 소수들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제자훈련을 하게 될 경우에 적은 소수들 붙들고 몇 년을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임을 잘 안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제자훈련을 시킬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수적인 부흥이 부담이 되게 된다. 가장 좋은 수적 부흥은 제자훈련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증가해 주는 것이다. 만일 제자훈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적 증가가 되게 되면 교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교회의 구성원의 다수가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채워질 경우 목회자의 비전대로 교회가 나아가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목회자와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들은 다수의 의견으로 목회자와 동상이몽을 꿈꾸며, 다른 비전을 내세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교회들 세워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성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목회에 반영해야 한다. 성도들의 의견이 다 틀렸다는 말도 아니다. 성도들의 의견이 얼마든지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들의 의견이 옳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될 때 가장 바람직하게 세워질 수 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 돕고 협력할 때 건강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들 세울 수 있다.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에베소서 4장 11-12절에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듯이 목회자에 의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훈련되고 무장되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들 세워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것이다. 때문에 가장 좋은 교회 성장은 훈련되어 가는 숫자에 걸맞게 수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개최 전략으로 소유한 목회자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수적 부흥에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동역자들을 신뢰하기에 심리적인 안정이 있다. 목회자에 의해서 훈련되어 세워진 사역자들은 목회자와 같은 비전을 소유하게 된다. 많은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제자훈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목회자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뜻을 묵상했고, 발견했고, 나누었고, 결심했기 때문에 함께 사명을 지고 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바울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바울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동일한 주님을 모신 사람들로서,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거듭남, 동일

하게 발견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에게는 이런 사역과 마음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배출되면서 그들을 신뢰하게 되는 심리적 안정을 소유할 수 있다. 교회들 세워가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목회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2. 사역적인 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동역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 가장 큰 유익은 사역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에는 나 혼자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찾아 간다. 전에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졌지만, 이제는 그들이 함께 짊을 진다. 전에는 혼자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알아서 함께 일을 한다. 혼자 지던 사역을 함께 지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의 분량이 적어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홀로 사역의 짐을 지고 걸어갈 때의 외로움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고통이 되기도 한다. 오직 나 혼자라고 여겨질 때의 그 마음 상태는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사역을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사역의 양이 적어지는 것 뿐 아니라, 이제 함께 가는 사람이 생겼다는 점에서 오는 힘과 즐거움이 있다. 이것은 목회에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다. 그리고 사역을 조금씩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다.

제 5 절 직분자들에게 미친 영향

현재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직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회의 사역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1. 자신감

제자훈련 목회가 직분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무엇보다도 직분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직분자들이 교회들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자신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자신감이 없을 때 직분자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역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사역의 열매를 얻기가 쉽지 않다. 제자훈련 목회에서 가장 소중한 소득은 직분자들이 자신감

을 가지고 사역을 힘 있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2. 개인 신앙관리 능력 확립

직분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탈진이다. 사역의 현장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제 얼마 사역을 하지 못했는데 찾아오는 탈진은 많은 사역자들을 괴롭게 하고, 급기야는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도 한다. 이것은 굳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만 보여 지는 현상은 아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나, 목회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 탈진 상태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훈련되고 무장된 평신도 사역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신앙관리 능력’이 생성되어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영적 상태들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매순간마다, 그리고 매사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들 점검하고, 탈진에 빠지지 않도록 영성관리들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일정 속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만큼의 에너지들 할당해야 하는지들 알아서 시간의 관리와 일의 관리들 할 수 있게 된다. 탈진에 이르기 전에 자기들 관리하며, 혹시 탈진에 이른다 해도 어떻게 빨리 그 탈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들 알고 속히 스스로 벗어나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본인에게는 주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면서 큰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의 큰 기쁨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회의 소중한 동역자들 얻게 하는 것이다.

3. 가정의 안정

가정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사역 역시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안정은 곧 사역의 안정이며, 평신도 사역자들의 사역의 안정은 곧 교회의 안정이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평신도 사역자들의 가정이 행복할 때 그들의 교회의 사역 역시 행복하게 되고, 그들의 교회 사역이 행복할 때 교회 역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평신도 사역자들의 가정이 불안정할 때 그들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극명한 한계들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사역을 역동적으로 감당해야 할 시점에 가정이 위기들 당하게 되면 사역을 힘 있게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성도를 앞에서 몇몇하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훈련되고 신앙이 성숙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너무도 소중한 결과들 얻게 된다. 제자훈련은 단순히 교회 사역을 위한 단순한 기술 몇 가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다. 제자훈련은 전인적인 훈련이고, 전 삶에 관여하는 훈련이다. 제자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훈련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의 훈련이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 답대로 지키어 살게 하는 훈련이 제자훈련이다. 성경에서 답해주는 대로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때문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자훈련을 잘못 시키고 있는 것이든지, 제자훈련을 잘 못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제자훈련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반드시 가정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과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신들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면서 평신도 사역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며, 몇몇하므로 매사의 사역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그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4. 다른 사람을 돌보는 능력

평신도 사역자들이던 목회자들이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일 것이다.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쉬울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항상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로 인하여 자신감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역자들의 큰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서 사역을 할 수도 없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우는 일이 있다. 이 사역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기에 교회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이며, 사역자들이 거부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사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역의 핵심이기에 이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사역자의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실 이 사역을 제외하고서는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들이 진정한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 사역을 제외하고 그 어느 사역에서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

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외치지 않았는가. 결국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이 일이며, 사역자 본인이 가장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일도 바로 이 일이다. 그렇기에 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사역자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풍성한 사역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사역자가 자신감을 상당하게 소유하게 되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힘 있고 자신 있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자신감의 유무는 전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일할 수 있는 능력

교회에서 교회들 세워가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는 일 외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외에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여러 필요한 행사들이 있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도 적지 않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그 일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하고, 업무들 적절히 분담하고 일을 진행시켜야 하고, 또한 그 일의 마무리들 통해서 일을 평가할 수도 있어서 정당하게 평가하여 다음 일에 그 결과들 반영시킬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일하는 능력도 얻게 된다. 일을 어떻게 기획하며, 업무들 어떻게 분담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여, 어떻게 결과들 평가하여 다음 일에 반영하면 되는지들 배우고 훈련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맡은 부서에서 맡은 일을 능숙하게 감당함으로써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 자신감은 다 일을 잘 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들 얻게 하는 것이다.

제 7 장 결 론

제자훈련을 교회 개척 전략으로 선택한 이후 지금까지 10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지만 제자훈련을 교회 개척 전략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적이 없다. 오히려 제자훈련을 개척 전략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 1 절 사역의 평가

사역을 평가할 때 대략 다음 두 가지로 평가 하고 싶다.

1. 교회의 문제 예방

열심도 대단하고 신앙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그들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목회자와 교회들 더욱 힘들게 하게 된다. 심할 경우에는 목회자가 더 이상 목회들 계속 할 수 없게 되거나, 교회가 분리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전략으로 세우고 교회들 개척하면서 정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들 막론하고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직분자들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개척교회로서 때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형편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유혹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들 떠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직분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이 이미 지키셨던 원칙이다. 신분귀천 가리지 않으시고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지도자들 삼으시고, 그들에게 교회들 맡기셨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목회에 좋은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다. 교회가 큰 문제없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한다. 다양한 문제의 예방이 되고 있다.

2. 교회의 견고한 성장

교회들 세우는 일에 있어서 리더들의 역할은 실로 중차대하다. 목회의 현장에서 리더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리더들의 충성과 헌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제자훈련을 받은 리더들의 충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한 것이다. 주께 대한 충성과 함께, 목회자에 대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소그룹과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맡은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한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리더들의 헌신과 충성은 끝이 없다.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한 그룹을 이끌어가기 어렵게 된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리더들이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신뢰를 얻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가정교회에서, 사역팀에서, 주일학교에서, 여러 사역과 활동들에서 리더에 대한 신뢰는 대단하다. 이들의 이러한 충성으로 인해서 교회는 강건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 2 절 교회 개척의 가능성

작금에 이르러 교회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 살펴 보았듯이 교회 개척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하겠다. 개척을 했다가 문을 닫는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왜 교회가 문을 닫기에 이르렀는지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시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상황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왠지 뻔뻔하지 못한 면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은 여전히며, 성령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교회는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세상의 유일한 빛도 교회이며, 유일한 소금도 역시 교회이다. 문제는 주님이 주신 개척 원리대로 하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개척은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준수하면 지금도 교회는 역동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주신 교회들 세우는 목적이 분명하

다면 그 교회는 여전히 성장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그들은 여전히 참된 복음과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찾고 있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제 3 절 교훈과 발전제안

모든 목사들은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평양 부흥을 다시 꿈꾸면서 모이는 각종 모임들, 코스타, 각종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들, 실로 다양한 모임과 조직들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모이고 조직하고 배우고 강의하고 열심히 애들 쓰고 있어도 교회는 더 세속화되고 있고, 나라와 민족은 더 타락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과 신자들은 슬픔과 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받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땅에 교회들 통해서 얻는 것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해지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목사들이 밖으로 도는 사이에 목사들 자신은 탐욕과 자기 영광, 그리고 좌절감에 무너져가고 있고, 성도들은 세속화되고 있으며,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사이에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과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이다. 목사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로 돌아가서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시작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회복이 될 것이며, 신자다운 신자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교회 개혁의 사명완수들 소망하며

랄프 에머슨(Ralpe W. Emerson)이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좀 더 나은 교회들 만들어 놓고 떠나고 싶은 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꿈일 것이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장소가 중요하다

고 말한다. 그러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들 개척하는 목회자의 초점을 하나님과 맞추는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이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는 “내가 세우리라” 하시면서 교회들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장소들 지정하지 않으시고 그저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제자들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주님의 분명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순수한 열정이 중요한 것이다.

본인은 교회 개척의 전략으로서의 제자훈련을 기술했다. 작금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훈련만큼 주요한 교회개척 전략은 없다고 확신한다. 본인이 교회들 개척하여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힘 있는 교회로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제자훈련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개척해서 현재까지의 교회들 세우는 기초과정을 논술하는데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애초의 목표대로 이제부터 교회는 더 힘 있게 부흥을 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꿈틀거리고 있다. 이제 교회의 제2의 도약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개척 전략으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도 제자훈련을 펼치고 있다. 제자훈련은 교회 개척 전략으로서, 또한 교회 성장 전략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역동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완수의 전략으로서도 여전히 가장 주요한 전략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가야할 길과 성취해야 할 사명, 그리고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 세상이 우리들 유혹한다. 사단도 우리들 대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사명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분명 우리의 앞길에는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¹⁹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결코 불에 타지 않는다. 그 교회는 나무나 짚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⁹⁹⁾ 10년의 목회들 돌아보면서 목회자의 목회전략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한

198)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95.

199) Simson. *가정교회*, 250.

다.

부록 1

여름 수련회 일정표

구분	첫째 날(월)	둘째 날(화)	셋째 날(수)	넷째 날(목)
am 6:00 7:00	은혜의 동산으로 출발	새벽기도회 & 예배		
8:30		아 침 식 사		
10:30		특 강 1	특 강 2	특 강 3
pm 12:30 1:30	시작예배	G. B. S. 2	G. B. S. 3	G. B. S. 4
	점심식사	점 심 식 사		
3:30 4:00	G. B. S. 1	자유시간	자유시간	부부행복교실 3:30 4
6:00	부부행복교실 1	부부행복교실 2	부부행복교실 3	새출발예배 4:00
7:30	저 녀 식 사			승리의 현장으로 출발
10:30	저녁집회 1	저녁집회 2	저녁집회 3	
11:30	은혜의 나눔		결단의 밤	

부록 2

설문지 1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성별/ 남, 여

1. 제자훈련과 예배생활과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1) 깊은 관계가 있다.
 - 2) 조금 관계가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관계가 없다.
 - 5) 전혀 관계가 없다.

2. 제자훈련을 하기 전 예배생활과 제자훈련 후 예배생활이 차이가 있는가?
 - 1)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 2) 조금 차이가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차이가 없다.
 - 5) 전혀 차이가 없다.

3. 제자훈련 후 예배생활이 제자훈련 전의 예배생활보다 더 나아졌는가?
 - 1) 훨씬 더 나아졌다.
 - 2) 조금 나아졌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 5) 훨씬 더 나빠졌다.

4. 제자훈련이 예배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 1)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2) 조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5)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

5. 제자훈련의 성경공부가 예배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6. 제자훈련의 숙제가 예배생활에 미친 영향을 어떤가?

-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7. 제자훈련의 생활숙제가 예배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8. 제자훈련의 삶을 나눔이 예배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9. 제자훈련의 양육자의 예배생활이 당신의 예배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3) 그저 그렇다.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10. 성공적 예배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훈련을 추천할 마음이 있는가?

1) 적극 추천하고 싶다.

2) 조금 추천하고 싶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5)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설문지 2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성별/ 남, 여

1. 제자훈련과 당신의 삶과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1) 깊은 관계가 있다.
 - 2) 조금 관계가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관계가 없다.
 - 5) 전혀 관계가 없다.

2. 제자훈련 후의 당신의 삶이 제자훈련 전의 삶보다 더 나아졌는가?
 - 1) 훨씬 더 나아졌다.
 - 2) 조금 나아졌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 5) 훨씬 더 나빠졌다.

3. 제자훈련이 당신의 전반적인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 1)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2) 조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5)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제자훈련이 당신을 올바른 신자로 세우는데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1) 깊은 관계가 있다.

- 2) 조금 관계가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관계가 없다.
- 5) 전혀 관계가 없다.

5. 제자훈련과 당신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1) 깊은 관계가 있다.
- 2) 조금 관계가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관계가 없다.
- 5) 전혀 관계가 없다.

6. 제자훈련 후의 당신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제자훈련 전보다 더 나아졌는가?

- 1) 훨씬 더 나아졌다.
- 2) 조금 나아졌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 5) 훨씬 더 나빠졌다.

7. 제자훈련이 '성경이 당신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 1)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2) 조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5)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

8. 제자훈련이 '성경을 당신의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살게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 1)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9. 제자훈련의 양육자의 삶이 당신의 삶과 성경 이해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10.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성경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가?

- 1) 항상 성경으로 살고 싶다.
- 2) 조금 성경으로 살고 싶다.
- 3) 그저 그렇다.
- 4) 성경으로 살고 싶지 않다.
- 5) 매우 성경으로 살고 싶지 않다.

11. 성경을 유일한 삶의 법칙으로 하여 사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훈련을 추천할 마음이 있는가?

- 1) 적극 추천하고 싶다.
- 2) 조금 추천하고 싶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 5)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설문지 3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성별/ 남, 여

1. 제자훈련과 결혼생활과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1) 깊은 관계가 있다.
 - 2) 조금 관계가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관계가 없다.
 - 5) 전혀 관계가 없다.

2. 제자훈련을 하기 전 결혼생활과 제자훈련 후 결혼생활이 차이가 있는가?
 - 1)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 2) 조금 차이가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차이가 없다.
 - 5) 전혀 차이가 없다.

3. 제자훈련 후 결혼생활이 제자훈련 전의 결혼생활보다 더 나아졌는가?
 - 1) 훨씬 더 나아졌다.
 - 2) 조금 나아졌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 5) 훨씬 더 나빠졌다.

4. 제자훈련이 결혼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 1)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2) 조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5)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
5. 제자훈련의 성경말씀이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6. 제자훈련의 일반 숙제가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7. 제자훈련의 생활숙제가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8. 제자훈련의 삶을 나눔이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9. 제자훈련의 양육자의 결혼생활이 당신의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
- 2)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
- 3) 그저 그렇다.
- 4) 조금 나쁜 영향을 미쳤다.
-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10. 성공적 결혼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훈련을 추천할 마음이 있는가?

- 1) 적극 추천하고 싶다.
- 2) 조금 추천하고 싶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 5)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공종은. “예배와 설교.” *기독교연합신문*. 2005년 9월 25일자.
- 김남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서울: 규장, 1997.
-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 서울: 규장, 1999.
- 김배경. “통계청 조사 ‘우리나라 지역별 종교인구 현황’.” *기독신문*. 2005년 9월 28일자.
- 김상복. *교회와 목회자의 리더쉽*. 서울: 엠마오, 1987.
- 김재중. “술독에 빠진 한국 사회.” *국민일보*. 2005년 9월 14일자.
- _____. “자살률.” *목회시사스크랩*. 2005년 11월호.
- 김한수. “개신교인 의식조사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조선일보*. 2005년 1월 28일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2003.
- 류재광. “개신교, 성장문화와 성도 이탈 심각.” *크리스천 투데이*. 2005년 6월 6일자.
- 박민균. “교계, 자성의 목소리 높아.” *기독신문*. 2006년 6월 7일자.
- 박성수 외. *나는 정직한 자의 행동을 믿는다*. 서울: 규장, 2005.
- 배창돈. “제자훈련 인도자와 훈련생은 전도의 열정을 지녀야 한다.” *Disciple*. 2006년 10월호.
- 변재창. *작은 목자훈련*. 서울: 두란노, 1992.
- 양승언. “CAL세미나 수료자의 제자훈련 실시 현황과 과제.” *Disciple*. 2006년 6월호.
- 육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들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 _____. *바람직한 교회형태*. 서울: 엠마오, 1985.
- 유재성. “‘원가족 작업’을 통한 젊은 부부의 가정 위기관리.” *목회와 신학*. 2006년 11월호.
- 윤정국. “위기의 개신교.” *동아일보*. 2006년 6월 15일자.
- 이정석. “세속화된 교회는 미래가 없다.” *목회와 신학*. 2005년 1월호.
- 이광호. “교회와 가정 사역.” *건강한 기독교 가정*.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이만재.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서울: 규장, 1997.

최상태. “목회본질을 일깨워 건강한 한국 교회들 만드는데 기여했다.” *Disciple*. 2006년 6월호.

_____.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교회 사역이 가지는 목회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최진환. “우리나라 종교신자가 8,200만 명?” *한국일보*. 2004년 10월 5일자.

2. 번역서적

Bruce, A. B. *열두 제자 훈련 (The Training of the Twelve)*. 김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Chandapilla, P. T. *예수님의 제자훈련 (Master: Trainer)*. 신재구 역. 서울: IVP, 1998.

Colson, Charles and Nancy Pearcey.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How Now Shall We Live?)*. 정영만 역. 서울: 요단, 2003.

Edman, V. Raymond. *인생훈련 (The Disciplines of Life)*. 권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Eims, LeRoy.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Be the Leader You were Meant to Be)*. 네비게이토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1993.

Foster, Richard J.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Graham, Jim.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The Giant Awakes)*. 윤준서 역. 서울: 두란노, 1990.

Hanks, Billie and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Discipleship)*.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Henrichsen, Walter A. *훈련으로 되는 제자 (Disciples are Made-not born)*. 네비게이토 출판사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5.

Jones, D. M. Lloyd. *목사와 설교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77.
- Kubler-Ross, Elisabeth. and David Kessler. *인생 수업 (Life Lessons)*. 류시화 역. 서울: 이레, 2006.
- Ku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4.
- Nicholas, Ron.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서울: IVP, 1995.
- Ogden, Greg.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The Reformation)*.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 2000.
- Shenk, David W. and Ervin R.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들 개척하라 (Creating Communities of the Kingdom: New Testament Models of Church Planting)*. 최동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4.
- Simson, Wolfgang. *가정교회 (Saturation Church Planting)*.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Sine, Tom.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 (Taking Discipleship Seriously)*. 주순희 역. 서울: 두란노, 1990.
- Stott, John R. W.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One People)*. 김기영 역. 서울: 엠마오, 1989.
- Towns, Elmer and Douglas Porter. *사도행전식 교회 개척 (Churches that Multiply)*.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 Wagner, C. Pet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홍원팔 역. 서울: 알몰기획, 1994.
- _____. *개척하라 (Blazing the Way)*.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2000.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7.
- Watson, David. *제자도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0.

Vita of
Kwnag Ho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Hankil Presbyterian Church, Incheon

Personal Data:

Birthdate: March 17, 1959
 Birthplace: Seoul
 Marital Status: Married to Ok Joo Kim
 with two Children, Ha Eun and Dong Seok
 Home Address: #151-3 Hyo Sung Apt. 103-101 Shin
 Hyun Dong, Seo Gu, Incheon
 Phone: 032-571-8595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ober 13, 1992

Education:

B. A. Inha University, Incheon, 1988
 M. Div.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1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7

Personal Experience:

1996 to present: Senior Pastor
 of Hankil Presbyterian Church, Incheon

1992 to 1994: Assistant Pastor
of Seo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1994 to 1996: Missionary in China
of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